

# 갱신과 부흥

REFORM & REVIVAL / 창간호 2008 Vol.1

## 권두언

이환봉

교회개혁의 과제 ① 오직 성경으로

## 개혁교회 강단

존 칼빈

한 번의 가르침을 영원한 유익으로 (시편 119편)

이근삼

그리스도의 교회 (마 16:13-28)

## 개혁신학 산책

이상규

교회개혁으로서의 설교

황대우

최초의 개혁주의 윤리학자 마틴 루터

이신열

루터와 성경의 명료성

빌름 판 스파이커

마틴 루터와 성경의 인지신

## 개혁신앙 칼럼

송영록

그리스도인과 자살

편집부

근고지영(根固枝榮)과 개혁주의 성화론

## 서평

이성호

김재성 「성령의 신학자 존 칼빈」

이신열

원종진 「존 칼빈의 신학과 경전」

황대우

안더스 니그렌 「아가페와 에로스」

Reform & Revival



고 신 대 학 교  
개혁주의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 Kosin University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149-1

전화 : 051-990-2266 / 2268 • 팩스 : 051-911-2526

홈페이지 : [www.kirs.co.kr](http://www.kirs.co.kr) • E-mail : [kirs@kosin.ac.kr](mailto:kirs@kosin.ac.kr)



9 772005 421005

ISSN 2005-4211



고 신 대 학 교  
개혁주의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 Kosin University



고신대학교  
개혁주의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개혁주의학술원은 역사적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바르게 확립하여 항상 개혁하는 건강한 교회건설을 위한  
한국교회의 기원과 발달에서, 개혁주의 전통과 학문의  
정수를 갖춘 개혁의 교육기관으로, 그리고 신앙 삶의  
모든 영역에 학리학적 주장과 경관을 실천하기 위한  
학술원의 내면적 열매를 목적으로 한다.

이름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 롬 11:36 •

For of him,  
and through him,  
and to him,  
are all things; to whom be glory for ever.  
Amen.

• Romans 11:36 •

# 갱신과 부흥 Reform & Revival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2008 Vol.1

## 권두언

05 • 교회개혁의 과제 ①: "오직 성경으로"

이환봉

## 개혁교회 강단

10 • 한 번의 가르침을 영원한 유익으로 (시 119편)

존 칼빈 (John Calvin)

14 • 그리스도의 교회 (마 16:13-28)

이근삼

## 개혁신학 산책

27 • 교회개혁으로서의 설교

이상규

30 • 최초의 개혁파 윤리학자 마틴 부셔 (1491-1551)

황대우

38 • 루터와 성경의 명료성

이신열

48 • 마틴 루터와 성령의 인치심

빌름 판 스파이커 (Willem Van't Spijker)

## 개혁신앙 칼럼

57 • 자살과 그리스도인

송영목

61 • 근고지영(根固枝榮)과 개혁주의 성화론

편집부

## 서평

65 • 김재성, 『성령의 신학자 존 칼빈』

이성호

69 • 원종천, 『존 칼빈의 신학과 경건』

이신열

73 • 안데스 니그렌, 『아가페와 에로스』

황대우

## 78 학술원 소식

편집부

갱신과 부흥 / 2008년 11월 25일 발행 • 통권 1호 창간호

역은이 이환봉 이신열 • 펴낸이 김성수 • 펴낸곳 고신대학교출판부 • 주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등산동 149-1

전화 051 990 2266 • 팩스 051 911 2526 • 이메일 kirs@kosisin.ac.kr • 편집인쇄 에덴아트컴 02 2268 6131 • 디자인 이진우

ISSN 2005-4211

값 4,000원 •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권두언 Preface

이환봉 | 교회개혁의 과제 ①: "오직 성경으로"

개혁교회 강단 The Reformed Pulpit

존 칼빈 (John Calvin) | 한 번의 가르침을 영원한 유익으로  
(시편 119편)

이근삼 | 그리스도의 교회(마 16:13-28)

교회 개혁의 과제 1

# 개혁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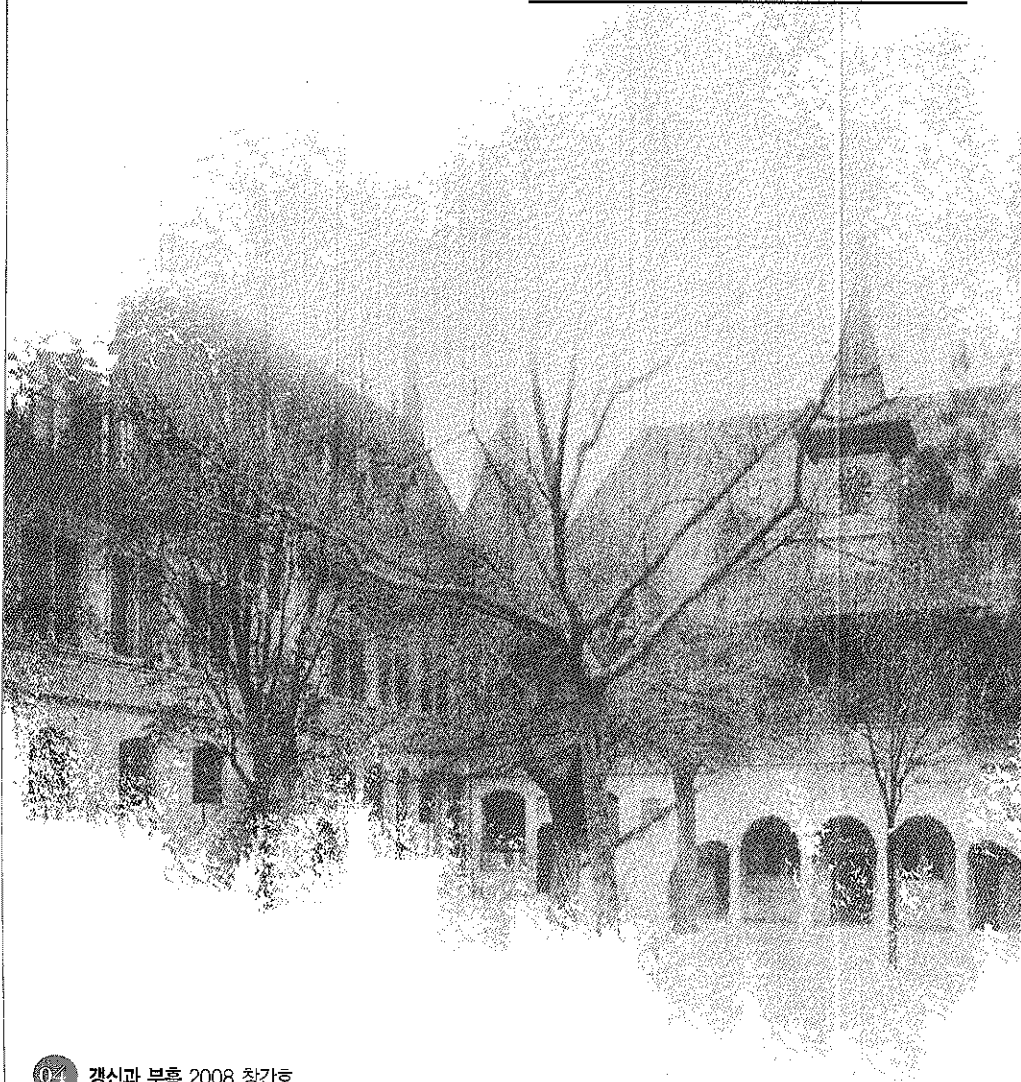
(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 est)

종교개혁자들의 교회개혁을 위한 신학과 신앙의 핵심적인 개혁과제는 "오직 성경으로"(sola scriptura), "오직 그리스도로"(solus Christus), "오직 은혜로"(sola gratia), "오직 믿음으로"(sola fide),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Soli Deo Gloria) 이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종교개혁의 모토가 말해주는 바대로 이러한 교회개혁의 과제들은 중세 개혁자들의 시대에 이미 완료된 것이 아니라 500여년이 지난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되어야 한다.

신학적 사고와 신앙적 행위가 혼란과 미궁에 빠져 있는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적 상황에서 교회개혁을 위한 이 다섯 가지 "오직"(sola)의 중요한 의미를 계속 하나씩 새롭게 확인하여 오늘의 교회개혁을 위한 과제로 삼고자한다.

## "오직 성경으로" (Sola Scriptura)

종교개혁 당시 개혁자들은 우(右)로는 로마 가톨릭교(Roman Catholicism), 좌(左)로는 재세례파(Anabaptist)에 대항하여 "오직 성경"을 바른 신학과 구원을 위한 신앙의 유일한 근거로 확립하였다.





## 오직 성경으로 (Sola Scriptura)

로마 가톨릭교는 진리를 판단하는 최종적 기준으로 인간이성과 교회전통을 앞세웠고, 재세례파들은 성령으로부터의 직접적 계시에서 비롯되는 새 계시의 가능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개혁자들은 “오직 성경”만을 하나님에 대한 진리와 지식 곧 신학의 유일한 표준과 원천으로 강조하였으며, 또한 교회의 신앙과 생활을 개혁하는 출발점과 최종적 권위로 삼았다. 그리고 그들은 이 “오직 성경”의 원리를 통하여 인간의 이성과 전통이 신학의 원리(*principium*)가 되거나 성경해석의 기초가 되는 것을 반대하였으며 그 어떤 세속 철학과 사상에 대한 타협과 굴복도 거부하였다.

그러나 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으로”의 원리를 통하여 사람들이 교회의 가르침의 직무와 전통적 신조들을 무시하고 각 개인이 저마다 성경에서 믿을 바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 루터는 그러한 개인주의(*individualism*)에로의 초대를 “각 사람이 자기 방식대로 지옥에 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라고 말하였다.

물론 개혁자들은 교회의 전통을 성경과 동일한 권위로 인정하는 것은 단호히 거부하였지만 초대 교부들의 신학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구사할 수 있었다. 또한 개혁자들은 성경을 판단하는 인간 이성의 잘못된 사용은 단호히 반대하였지만 철학을 이용하여 신학을 명료화하거나 성경의 진리를 유력하게 변증하는 노력을 반대하지는 않았다. 다만 개혁자들이 이 원리를 통해 강조하고자 한 것은 신학과 신앙에 있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증거와 가르침에 항상 충실하게 그리고 보다 철저하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오늘날 많은 장로교 신학자들이 성경의 인간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와 더불어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으로서 성경의 신적 기원과 권위에 대한 확신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위한 성경의 완전무오를 믿지 않는 자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교회 중에 성경의 교훈과 명령은 점차 뒷전으로 밀려나고 오히려 세상의 학문과 문화가 성경의 권위적 역할을 대신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경제성장을 위한 시장경제 논리와 마케팅 전략이 교회성장을 위한 성경적 원리와 방법을 대신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또한 성경적 원리 대신에 수요자 개인의 요구와 필요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개인적 실용주의와 엔터테인먼트의 원리가 오늘날 교회의 예배, 설교, 전도의 형식과 내용을 결정하고 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와 구속의 은혜가 심리학이 말하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상호갈등과 내적 상처로부터의 단순한 심리적 치유와 정신적 안정과 건강을 회복하는 것으로 대체되는 것을 보여준다.

설교에서조차 성경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지 않고 성경 이외의 현대의 세속적 권위와 지혜에 의존하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오늘날 장로교 안에서도 은사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대신에 성령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통신을 통하여 자신들의 체험과 감정에 기초한 주관적 확신을 직접적 계시의 차원에 까지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학문과 지식 그리고 다양한 세상 이야기로 혼잡케 하거나 성령 하나님을 빙자한 거짓 선지자들이 오히려 오늘날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성경으로(Sola Scriptura)”의 원리를 떠나 기독교를 오히려 개혁자들의 항거대상이었던 인간중심적 종교로 되돌아 가게 만드는 교회타락의 현대적 양상에 해당된다.

교회는 시대적 요청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성경말씀을 제쳐두고 사회학적, 심리학적, 경제학적, 경영학적 생각과 필요를 따라 복음과 신앙을 재구성해서는 안 된다. 성경적 신학적 반성 없이 물질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의 가치와 방식을 따라 은밀히 기획된 현대교회안의 온갖 인위적인 조작은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기 보다는 타락과 훼손으로 몰고 갈 것이다.

데이빗 웰즈(David Wells)는 「No Place for Truth (1993)」에서 저급한 현대사상과 문화에 아부하여 성경의 진리를 위한 자리를 찾아보기 힘들게 된 교회는 이미

데이빗 웰즈(David Wells)는 「No Place for Truth (1993)」에서 저급한 현대사상과 문화에 아부하여 성경의 진리를 위한 자리를 찾아보기 힘들게 된 교회는 이미 참된 교회일 수 없다고 하였다. 오늘날의 한국교회도 성경의 진리를 떠나 너무 변질되어 버린 것을 회개해야 한다. 세상의 영을 따르는 세상의 지혜를 단호히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오직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한다.

참된 교회일 수 없다고 하였다.

오늘의 한국교회도 성경의 진리를 떠나 너무 변질되어 버린 것을 회개해야 한다. 세상의 영을 따르는 세상의 지혜를 단호히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오직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 번 “오직 성경”만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신학과 신앙의 유일한 원천이며 우리의 양심과 행위의 충족한 표준임을 재확인한다. 성경만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모든 진리와 참된 삶의 모든 법칙을 가르쳐 줄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성령께서 성경과 반대되거나 독립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을 부정하며, 개인의 영적 체험이 계시적 진리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한다. 또한 우리는 세상의 시대적 요구와 소비자의 감성적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성경의 말씀을 임의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음의 유일한 원천과 구원진리의 유일한 선언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거룩한 직무를 믿는다.

우리는 오직 성경말씀을 따라 현대 대중문화의 잣대로 교회를 바라보는 거짓된 시각에서 해방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우리의 실제적 필요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공급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오직 성경의 거울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 우리 교회의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오직 성경의 말씀만이 가르쳐지고 선포되어야 한다.

다시 읽는 칼빈의 설교 1

# 한 번의 가르침을 영원한 유익으로 (시편 119편)

이제 다윗은 율법의 성찰로 얻은 유익을 밝히고 나서, 결코 그것을 잊지 않을 것임을 첨가합니다. 이 말로 그는 하나님께 결코 배은망덕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그

런 배은망덕 말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악이 있지만, 배은망덕은 가장 큰 악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총이 즉시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것들을 매장하려고만 할 정도로 악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빨리 기억을 상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이 구절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계명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그것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는 자신에 대해서 말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의무와 직무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구하실 때, 그는 그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무덤에서 건지시며,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고 언제나 기억해야 할 그런 은총을 느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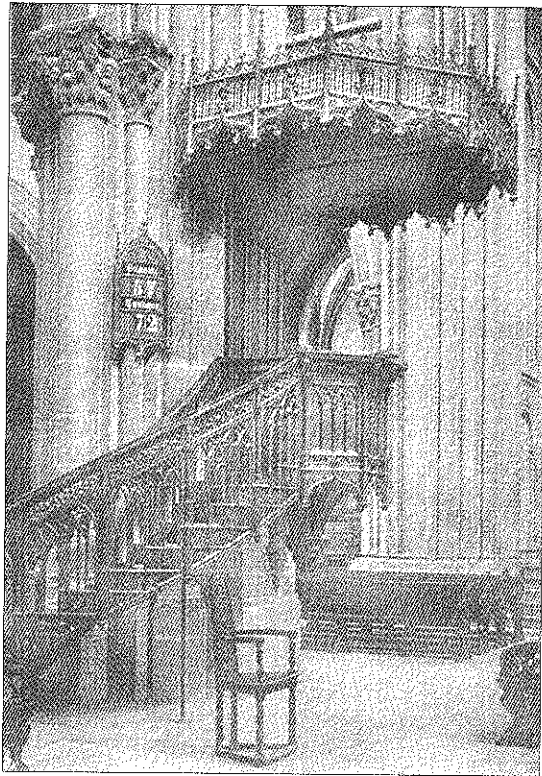
사실 말씀은 그 능력을 결코 상실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용함으로써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빵을 먹으며 그 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찾아야 합니다. 포도주를 마시면 목이 비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도와 살릴 때, 그것은 언제나 통째로 있으며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본을 따라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 부여하신 능력을 활용하는 법과 그것을 결코 망각하지 않는 법을 배우시다.

그런데 다윗은 한 가지 것을 더 말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그에게 유익을 준 이상, 앞으로도 그것을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 한 번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안에서 주어지는 위로를 통해 보존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래야 하는 것임을 압니다. 이것은 길게 설명되지 않으면 애매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윗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맛보지 못한 채 마치 쓰러진 자처럼 된다면, 그때 그에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파멸과 멸망을 위함이 아니라 회개로 이끌어 그의 인자하심을 느끼게 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훈계 받을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치유를 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훈계가 그에게 아무 소용없을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그는 그 훈계에 담겨있는 위로를 빼앗기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그에게 온갖 악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것에 유의하십시오. 즉 그가 하나님의 계명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그것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한 셈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말씀을 수단으로 나를 한번 보호하셨을 때, 당신이 그 말씀에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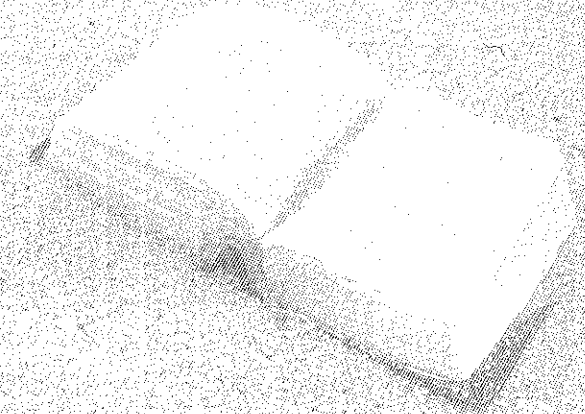
런 능력과 이런 특성을 부여 하셨을 때, 사망한 것보다 같 았던 내가 분명하게 구원의 회복을 느꼈습니다. 그때 당 신은 내가 평생 해야 할 것을 내게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것을 실천하는 것, 지속적 연구를 통해 당신의 부성에 로 내게 주어진 증거들을 생 각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그것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 함이며, 확신을 얻기 위함이며, 당신이 나를 결코 버리시 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내가 느낀 당 신의 말씀에 대한 용도는 내

평생 그것을 나의 유익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나에게 꾸미는 모든 것에 맞서며, 악인들이 나와 전쟁하려 할 때 당신에 대한 경외와 사랑으로 인내하기 위 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당신은 당신의 말씀이 언제나 내 앞에 있어야 함 을 내게 보이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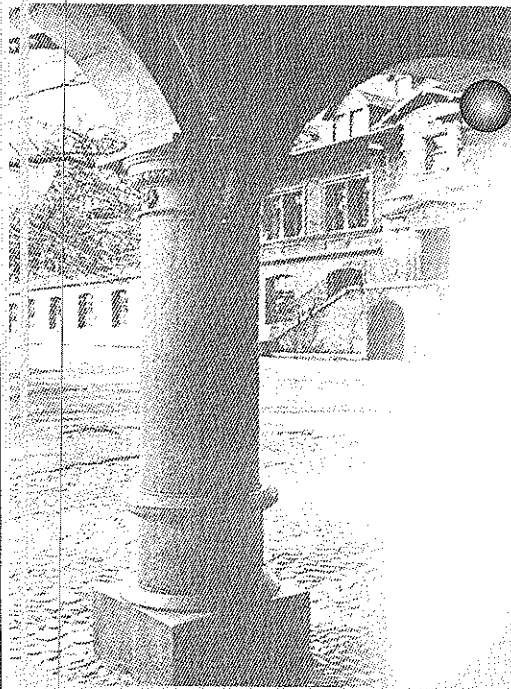
사실 말씀은 그 능력을 결코 상실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용함으로써 소멸되 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빵을 먹으며 그 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찾아야 합니다. 포도주를 마시면 통이 비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도와 살릴 때, 그것은 언제나 통째로 있으며 결코 줄어들지 않습 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본을 따라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 부여하신 능력을 활용하는 법 과 그것을 결코 망각하지 않는 법을 배웁시다.

- CO 32, 623-624, 「칼뱅의 시편 119편 설교」, 박건택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4) pp. 220-222에서 역자의 동의하에 발췌하여 재인용







한국 개혁주의 설교자 시리즈 ①

# 그리스도의 교회

(마 16:13-28)

예수님은 세상에 잃은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러 오셨습니다. 잃은 자를 찾아서 그들을 모아서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성숙하게 만들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영원한 천국에 가도록 하기 위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데 성경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은 베드로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고 부름 받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속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공동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 때 베드로가 열 두제자를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라' 라고 마음에 응축하시며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범죄 타락한 인간의 혈육을 가진 자의 이해로는 도저히 그런 소리를 할 수 없다. 내게 이것을 알게 해주신 이는 하늘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알려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시작하는데 절대적인 신앙고백이 있는 곳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습니다.

체, 신령한 공동체,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오셨을 때에 문득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가이사라 빌립보는 갈릴려 호수의 북쪽에서 동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데 그 곳은 동방의 이방종교들이 들어와서 우상을 숭배하였던 곳으로 종교가 왕성하고 헬라에서 들어온 철학들을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로마 군병이 주둔해서 로마의 가이사라 일개의 신으로 섬기는 로마 제국의 일부분으로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형편 가운데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참된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더러는 엘리아, 더러는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솔직하게 대답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에는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 때 베드로가 열두제자를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

도다' 라고 마음에 흡족해 하시며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범죄 타락한 인간의 혈육을 가진 자의 이해로는 도저히 그런 소리를 할 수 없다. 네게 이것을 알게 해주신 이는 하늘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네게 알려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시작하는데 절대적인 신앙고백이 있는 곳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대답을 그렇게 칭찬하고 복이 있다고 한 것은 베드로의 신앙고백이 예수님을 증거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어떠한 요건을 가지고 계셨는지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주는 그리스도시오' 라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는 구약의 '메시야' 를 가르킵니다. '메시야' 란 말은 기름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 기름부음을 받고 직분에 오르는 자들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사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으므로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아가서 백성을 대신해서 제물을 올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희가 저희 하는 일을 알지 못함으로소이다' 라고 하시며 만인을 용서해주셨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해주셨던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과 예수님이 다른 점은 제사장은 다른 짐승의 제물을 가지고 와서 인간 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제물이 되시고 친히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이런 제사장은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만왕의 왕이 되어서 당신의 백성들을 친히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삼직을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기름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분이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떤 사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삼위일체 제 2위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를 위해 살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시지 않았다면 오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것 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선물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믿는 자,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며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막 거듭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양육하는 도장입니다.

교회로 나오는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배우고 먹고 마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시는 은혜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 신학자들은 교회가 '성도들의 어머니' 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빨아먹고 성도로서 자라가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키워주시는 목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일마다, 달마다, 해마다 자라가야 합니다.

개혁교회에는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는 곳이 참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교회에서, 강단에서, 성경 공부하는 모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지 않는다면 그 곳은 참 교회가 아닙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성례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를 성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세례를 주어서 교회 회원이 되어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보통 개혁교회에서는 일 년에 네 번, 열심히 있는 곳은 여섯 차례 성찬 예식을 베풁니다.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만찬을 베풀어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것을 먹고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잔을 돌리시면서 '이것은 내 피를 기념하는 것이다. 이것을 마시고 나를 기념하라' 라고 예수님이 친히 베푸시고 명령하신 예식입니다. 그래서 세례식과 성찬예식을 교회에서는 참된 교회의 표식이라고 부릅니다. 말씀대로 성례식을 베풁는 곳이 참된 교

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참 나의 구주로 고백이 되시거든 당회의 인도를 받아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교회만 나오고 세례를 안 받으면 예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 년에 네 차례 시행되는 성찬 예식에 참여해서 자기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 받아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주님께 더 나아가는 이러한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주님과 함께 하고 주님의 성도로서 자라가야 합니다.

셋째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교회가 참 교회입니다. 만

일 교회에서 잘못이 발각되어 당회에서 불러서 야단을 치거든 겸손히 순종하고 회개하고 고치고 교회에서 얼마간 성찬예식을 중지하고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서서 성숙한 성도로 자라갈 수 있도록 교회에서 훈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권징한다', '치리한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 한 집안 식구이고 다 한 공동체의 일원이니까 만약 한 사람이 잘못되



어도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되며 예수님의 이름에 손상이 되기 때문에 고치고 바로 서야 합니다. 사랑으로 권면하고 바로 세우기 위한 징계이기 때문에 달게 받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당하게 성숙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시행되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현대는 남녀 관계가 음란해지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그와 같은 시대가 되어졌는데 그런 것을 깨닫게 해주고 고치게 해주는 것이 참 교회입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잘못을 인정하고 눈물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참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반석위에 내가 세우겠노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그 교회입니다.

### 셋째,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고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마귀의 장난, 마귀의 역사,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는 음부의 권세에 굴복하고 마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참된 교회를 이기지 못하며 교회는 영원히 왕성한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참 그리스도시오' 라고 고백하는 온 세계 만민을 다 포함한 그들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하는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은 이 교회가 무용지물이며 자기들의 종교와 신앙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며 교

회를 핍박하고 소란케 하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려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얼마나 침범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작게는 음부의 권세가 내 마음 속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나에게도 죄 짓도록 마귀가 역사해서 심지어 목사들도 넘어지도록 만들고 죄악과 더불어 타협하도록 하는 일이 다 음부의 권세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비록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망하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영영 왕성한 것입니다.

프랑스의 볼테르 (Voltaire)라는 무신론자이며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멸시하고 예수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신론이라는 이론을 통해서 50년이 지나면 기독교회를 기억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고 200년 후 지상에서 기독교인이 없어질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볼테르는 어느 날 밖에서 햇빛을 쬐이고 앉아 있다가 날아가는 까마귀가 물고 가던 것을 떨어뜨렸는데 그만 그의 머리 위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서 그가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6개월만 누가 나를 연명 해주면 내가 가진 재산의 반을 다 주겠다' 라고 하면서 '그러나 나는 지옥에 간다. 오! 예수여 당신도 나와 함께 지옥에 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는 그는 결국 죽어 갔습니다.

그가 50년 후에는 기독교회가 세상에서 없어지고 아무도 기억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던 그 집은 성서공회화 되었으며 여기에서 성경을 많이 출판되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는지 모릅니다. 마귀의 음부의 권세는 절대로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한국교회가 50년 동안 복음을 받아들여 굉장히 왕성하고 부흥하였습니다. 마귀가 이것을 보기가 심히 싫었던 모양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밀어닥치는데 일본을 통해서 한국 교회의 말살정책을 썼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를 남

겨주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박광영 장로님과 같은 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며 감옥에 갇혀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옥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종들을, 말씀을 끝까지 지킨 종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해방시켜주시고 해방 후에 한국 교회를 세계의 선교하는 교회로 부흥시켜주신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가 한국 교회를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귀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는 주님의 예언입니다.

### 넷째, 예수님께서서는 고난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회는 고난의 원리를 터득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주에게 이런 일이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래 네 말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인데 한 번 생각해보자' 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고난 받지 못하게 해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주교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 그 반석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고 베드로를 계승해 나아가는 로마교회 교황은 교회의 반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반석이 서

있는 교회는 로마교회, 천주교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다, 사단이다, 내 뒤로 물러가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세우셨는데 왜 베드로를 향해 '너는 사단이라' 말씀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의 신앙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만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방해하는 사단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로마 교회에서는 교황이 죄가 없다는 교황 무죄성과 성모 마리아 무죄성을 주장하고 그래서 마리아 동상의 발에 입을 맞추고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기도를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분명한 진리를 어기면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또한 천주교의 연옥설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성도라도 죽으면 다 연옥에 들어가서 지옥불보다 더 뜨거운 불속에서 고생을 하게 될 것이므로 자신의 남편, 아내, 부모를 위해서 살아있는 성도들이 헌금과 기도를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행하면 그들을 그 고난에서 건져낼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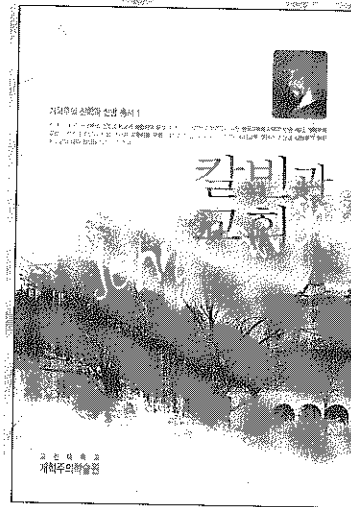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이 구속할 수 있는데 인간이 바치는 재물이나 희생을 가지고 연옥에 있는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연옥설은 잘못된 것입니다. 천주교는 이렇게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신앙고백위에 세워져야 참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교회의 원리가 고난의 원리요 부활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팔복의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 이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 총서 ①

칼빈과 교회



개혁주의자들이 요구한 교회개혁의 핵심은 항상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개혁의 표준은 상황이 아니라 성경이며 개혁의 태도는 창조가 아니라 회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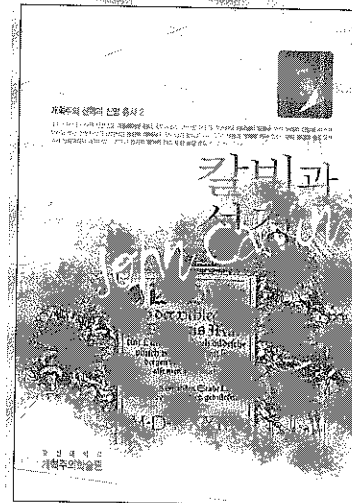
종교개혁이란 새로운 것의 창조와 확립이 아니라 성경적인 옛것의 갱신과 재확립이다. 루터가 95개 조항의 선언문을 회개의 요청과 더불어 시작한 것은 회개 즉 성경적 신앙의 회복이야말로 교회갱신의 진정한 출발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 물질주의, 물량주의, 세속주의의 가치와 방식을 따라 은밀히 기획되어진 오늘 교회안의 온갖 인위적인 조작은 결국 교회를 갱신하기 보다는 오히려 훼손할 뿐이다.

이제 한국교회는 세상의 영을 따르는 세상의 지혜를 단호히 거부해야한다. 오직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고신대학교 개혁주의학술원편 | 2007 | 10,000원〉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 총서 ②

칼빈과 성경



개혁교회는 오직 성경말씀의 진리 안에서 모든 악한 타협을 거부하기 위해 보수주의자보다 더 보수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오직 성경으로"의 길, 즉 보다 더 철저하게 성경적이 되는 길 뿐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들은 말씀의 표준에 비추어 볼 때 너무 변해서 회개해야 하고 또한 너무 변하지 않아서 회개해야 한다. ...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개혁의 시대적 사명을 올바로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과 충족한 근거임을 새롭게 다짐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신대학교 개혁주의학술원편 | 2008 | 10,000원〉

우리도 부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죽음에 들어간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참 그리스도의 교회, 참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말씀이 올바르게 전파되고 성례전이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르게 집행되고 우리 생활의 바른 지침을 가지고 훈계해주고 경계하고 책벌도 해가면서 바로 서기를 위해서 힘써 주고 기도해주는 참된 교회입니까? 당신이 어떻게 살았든지 주일날 예배당만 나오면 된다고 핑개쳐놓는 교회입니까?

나를 생각하고 사랑하고 간섭해주고 바로 세워가는 훈련을 올바르게 실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풍부하게 가르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말씀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성도로 양육해주는 참된 교회! 이런 교회가 내가 속한 교회이고 내가 사랑하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서 훈련받고 성장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 미국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www.kcrcoc.com)에서 2005년 9월 4일, 마 16:13-28을 본문으로 행한 설교임



개혁신학 산책 (Walking with Reformed Theology)

이상규 | 교회개혁으로서의 설교

황대우 | 최초의 개혁주의 윤리학자 마틴 부셔  
(Martin Bucer, 1491-1551)

이신열 | 루터와 성경의 명료성

빌름 판 스파이커 (Willem van 't Spijker)  
| 마틴 루터와 성경의 인치심

# 교회개혁으로서의 설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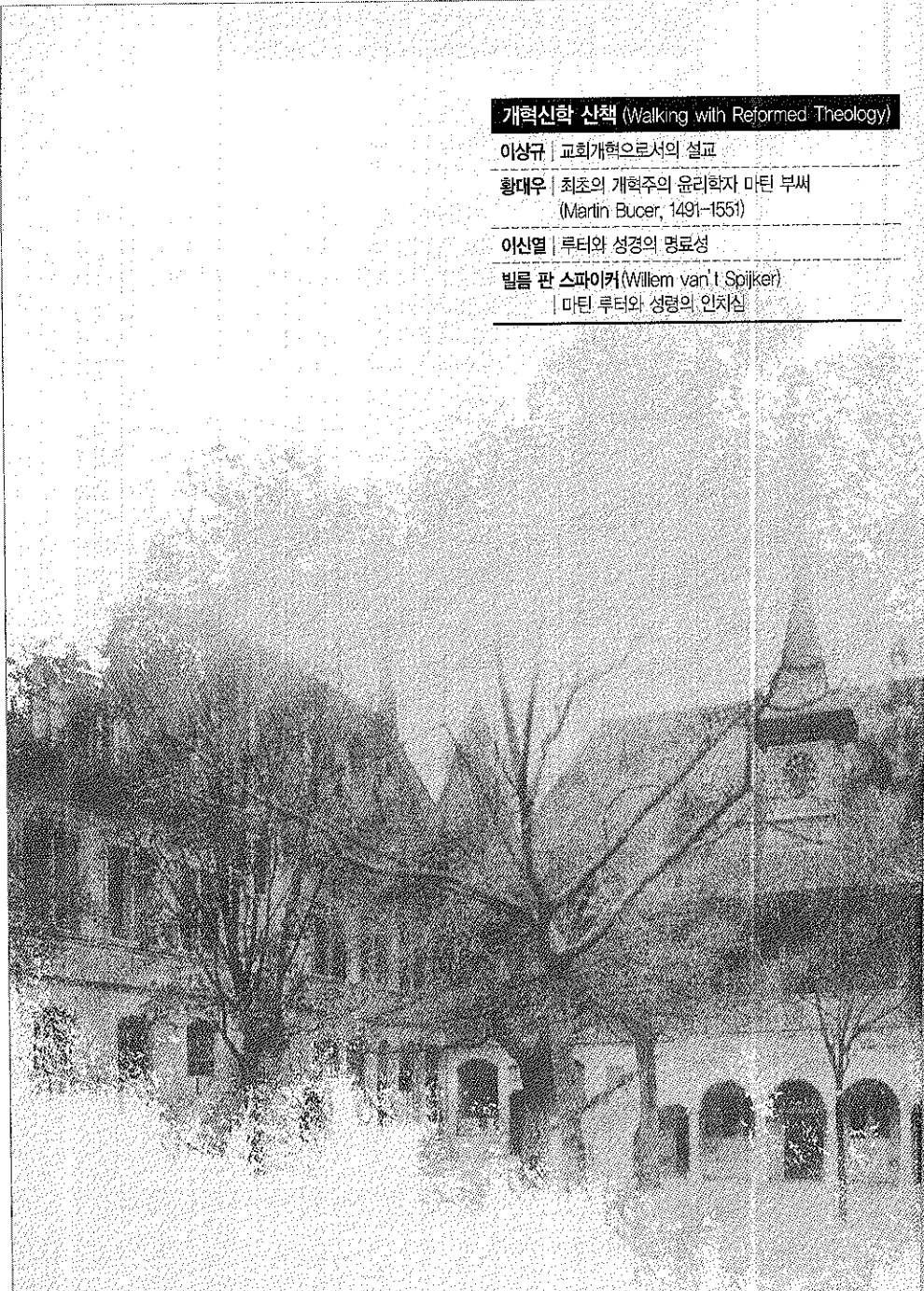
16세기에 일어난 교회개혁운동을 우리는 '종교개혁'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교회의 개혁이었다. 개혁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교회'였고, 교회가 어떠한가 하는가가 그들이 중요한 관심사였다. 근원적으로 교회가 무엇이며, 그리고 어떠한가 하는가에 따라 교회의 기능 혹은 교회의 사명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개혁자들은 당시의 로마 가톨릭은 진정한 교회라고 볼 수 없고 성경의 기초, 곧 사도적 교회의 특성을 상실한 변질된 기구라고 이해했던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교회로부터의 분리는 불가피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본다면 종교개혁이라는 말보다는 교회개혁이라는 말이 사실에 있어서나 역사적으로 볼 때 더 선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일본의 용례를 따랐기 때문이었다.



한국에서 교회사를 가르쳤던 호주출신 선교사 왕길지(G. Engel)가 The Reformation을 '교회개정신사(教會更正新史)'로 번역했던 일은 흥미로운 일이다. 어쨌든 개혁자들의 중요한 관심은 하나님의 교회였고, 그들의 개혁운동은 한마디로 참된 '교회건설'이었다.

개혁자들, 특히 칼빈은 참된 교회 건설의 중요한 도구를 설교의 회복에 두었고, 설교는 근본적





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강론이었다. 말하자면 교회개혁신의 핵심을 말씀의 권위회복에 두었고(B. C. Milner, *Calvin's Doctrine of the Church*, 133; Paul L. Avis, *The Church in the Theology of the Reformers*, 14) 설교를 통해 이를 실현하고자 했다. 즉 설교는 교회개혁과 교회건설의 중요한 도구였다. 이 점은 청교도였던 존 코튼(John Cotton, 1584-1652)의 경우에도 동일했다. 코튼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에 관하여」(*De Regno Christi*)에서 “영국교회는 교회의 표지를 회복함으로써 개혁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설교를 교회개혁의 수단으로 간주했다(오덕교, 『청교도와 교회개혁』, 204). 개혁자들에게는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였기에 이를 ‘성경중심’(*sola scriptura*)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성경의 바른 설교를 통해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으므로 개혁자들은 ‘말씀의 신실한 전파’를 참된 교회의 표지로 인식했다. 이런 점에서 케임브릿지(Cambridge)대학의 피터 뉴먼 브룩스(Peter Newman Brooks)는 “종교개혁은 본질적으로 목회적 성경을 띤 운동이었다.”고 말했다.

칼빈은 신학자이기에 앞서 설교자였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경의 권위는 중요한 문제였고, 성경외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성경의 유일한 권위를 강조하여 성경은 하나님 인식과 신학의 유일한 원천이었다. 이 점에 있어서 칼빈이 루터보다 더 철저했다. 이 점은 전통(tradition)에 대한 루터와 칼빈의 견해를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루터는 “성경이 금하지 않는 한 전통은 구속력을 지닌다”고 보았으나, 칼빈은 “성경이 명하지 않는 한 전통은 구속력을 지니지 못한다”고 보아 전통을 폐기했다. 그 결과 루터교회에는 여전히 로마교적 잔재가 남아

칼빈을 신학자이기에 앞서 설교자였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경의 권위는 중요한 문제였고, 성경외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성경의 유일한 권위를 강조하여 성경은 하나님 인식과 신학의 유일한 원천이었다. 이 점에 있어서 칼빈이 루터보다 더 철저했다.

있으나 개혁교회에는 로마교적 잔재를 말끔히 씻어버릴 수 있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루터교회보다 더 철저한 개혁을 이루었고, 바로 이런 점에서 베인톤은 “개혁주의는 루터주의를 다시 개혁했다.”고 말하고 “개혁(Reformed)이란 종교개혁의 개혁을 의미한다”고 말했다(Bainton, *The Age of the Reformation*, 39). 어떤 개혁자들은 성경을 강조하였고, 진실된 말씀의 증거를 참된 교회의 중요한 표식으로 삼았다.

현재 남아 있는 칼빈의 설교목록은 약 2,050편인데, 그 중에 완벽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는 것이 구약이 571편, 신약이 397편이다(김재성, 『칼빈과 개혁신학의 기초』, 295).

칼빈은 참된 교회의 표식(*signum*)으로 말씀과 성례를 말했는데, 이 점은 루터란과 다르지 않다. 루터는 하나님의 올바른 선포만 강조했지만, 칼빈은 말씀의 바른 선포만이 아니라 청중도 올바르게 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시 말하면 칼빈은 루터란과는 달리 바른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지도록 청중은 성경강해와 설교를 경청하고 그것이 진정한 말씀의 선포가 되도록 듣는 귀를 가져야 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

오늘 한국교회의 설교가 때로 ‘연설’ 혹은 심한 경우 시사 평론으로 왜곡된 것은 바로 들어야 할 청중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것이 칼빈적 해석이다. 교회 개혁과 쇄신을 위해서는 설교자의 책임 못지않게 청중에게도 책임이 있다. 청중은 설교의 바른 선포를 위해 파수군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 최초의 개혁주의 윤리학자 마틴 부셔 (Martin Bucer, 1491-1551)

부셔는 주로 남부 독일의 개혁과 신학자이자 교회 조직가로 잘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 정치가로서도 명성이 자자하다. 그는 독일 남부의 알자스(Alsace) 지방의 슐레트슈타트(Schlettstadt = 불어, Selestat, 16세기 당시는 독일 영역이었으나 지금은 프랑스에 속함)에서 태어났으며 경제적인 이유로 1507년경에 고향에 있는 도미니칸 수도회에 수도사가 되었다.



이곳에서 그는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의 신학뿐 아니라, 오래된 알자스적인 인문주의 정신을 배웠다.

수도회의 선배들은 그가 학문을 연마하고 학위를 취득하도록 1517년 1월에 하이델베르크(Heidelberg)로 보냈는데, 재능이 풍부한 젊은 부셔는 로데르담 출신 데시데리우스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 of Rotterdam)의 저술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 또한 1518년 봄에 열린 하이델베르크 논쟁(the Heidelberg Disputation)에서 부셔는 루터

1523년 5월 초에 부셔는 파문된 피난민이라는 신분으로 슈트라스부르크(Strassburg)에 도착했다. 여기서 그는 즉시 초기 단계의 개혁 운동에 착수했으며 자신의 첫 저술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Das ym selbs niemant sonder anderen leben soll)>을 출판함으로써 신학자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것을 필두로 수많은 저술들을 출판했는데 그 가운데 초기의 주석들도 있다.

(Luther)의 영향을 심대하고 결정적으로 받게 되었다. 이런 영향들로 인해 부셔는 자신의 독립적인 신학을 발전시켜 갈 수 있었다.

부셔는 1521년 4월 29일에 재속 사제가 되었고 프란츠 폰 지킹엔(Franz von Sickingen)과 울리히 폰 후텐(Ulrich von Hutten)과 같은 기사들의 씨클에서 몇 년간 어수선한 세월을 보내었다. 그동안 결혼도 했고 또한 1522년에는 알자스 지방의 한 도시인 바이쾨부르크(Weissenburg)에 개혁 운동을 도입하려고 시도했으며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 1523년 5월 초에 부셔는 파문된 피난민이라는 신분으로 슈트라스부르크(Strassburg)에 도착했다. 여기서 그는 즉시 초기 단계의 개혁 운동에 착수했으며 자신의 첫 저술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Das ym selbs niemant sonder anderen leben soll)>을 출판함으로써 신학자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것을 필두로 수많은 저술들을 출판했는데 그 가운데 초기의 주석들도 있다.

예를 들면 1527년에는 공판복음서와 에베소서 에 대한 주석이 출판되었고, 1528년에는 요한복음과 스바냐 주석이, 1529년에는 시편 주석이, 1536년에는 로마서 주석이 출판되었다. 공판복음과 요한복음, 그리고 에베소서 주석은 후에 증보 출판되기도 했다. 이런 주석보다 앞서 출판된 것은 부셔가 루터파 신학자 요하네스 부겐하젠(Johannes Bugenhagen)의 독일어 시편 주석과 루터의 설교들을 라틴어로 번역한 책들이었다. 이처럼 라틴어 실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부셔는 후에 루터로부터 라틴어로 된 논쟁문서를 대신 작성해 줄 것을 요청받기도 했다.



1529년에 개최된 최초의 교회연합모임인 말부르크 담화(Marburg Colloquy)를 성공적으로 주선한 사람도 다름 아닌 부셔였고, 1539-1541년 사이에 몇 차례 개최된 종교개혁 집단과 로마교 사이의 연합운동 역시 부셔가 앞장 선 일이었다. 교회연합운동에 대한 그의 끊임없는 노력은 루터와 합의를 이끌어낸 1536년 비텐베르크 일치신조(Wittenberg Concord)를 통해 결실을 맺었으나 이 일치신조를 츠빙글리(Zwingli)의 후계자 불링거(Bullinger)가 받아들여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별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부셔가 주도했던 두 연합운동 즉 종교개혁자들 사이의 연합운동과, 종교개혁가들과 로마교 사이의 연합운동이 실패함으로써 부셔의 노력은 비하되고 왜곡되었으며 결국 그의 이름은 역사 속에 묻히고 말았다. 16세기에 루터 못지않게 왕성한 활동으로 인해 얻은 대중적인 신뢰와 명성이 역사의 뒷안길로 사라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벌어진 슈말칼덴(Schmalkalden) 전쟁에서 개신교 측이 패배함으로써 슈트라스부르크시가 아우스부르크(Augsburg) 잠정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셔를 추방한 사건이었다.

25년간 자신이 팍 흘려 쌓아온 개혁운동의 벽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경험해야 했던 부셔는 1549년 초에 토마스 크랜머(Thomas Cranmer)의 초청을 받아 영국에 도착하였고 캠브리지(Cambridge) 대학에서 교수로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으나 얼마가지 못해 마침표를 찍어야 했다.

부셔의 무덤은 메리(Mary) 여왕에 의해 파헤쳐졌고 부셔의 꿈은 이단이라는 명목으로 화형 되었으나 그녀의 뒤를 이은 엘리자베스 1세(Elizabeth I)가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었다. 부셔가 남긴 최후의 역작은 영국 왕 에드워드 6세

(Edward VI)를 위해 두 권의 라틴어로 작성한 <그리스도의 나라에 관하여(De regno Christi)>이다. 그는 이 책에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고 세워져야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며 결혼과 이혼이라는 주제로 마감했는데, 이 마지막 주제는 유명한 <실락원>의 저자 존 밀턴(John Milton)에 의해 영어로 번역되었을 만큼 의미 있는 논문이었고 심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수많은 종교개혁가들 가운데 왜 슈트라스부르크의 종교개혁가 마르틴 부셔를 최초의 윤리학자라고 부르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부셔가 신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기 때문이다. “참된 신학은 경건하고 복되게 사는 것입니다.” “참된 신학은 이론적이거나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 활동적이고 실천적인 것입니다.” 신학에 대한 부셔의 이러한 정의는 때로 그를 경건주의의 선구자로 오해 받도록 하기도 했다. 그러나 부셔가 결코 16세기 경건주의자로 간주될 수 없는 것은 그가 믿음의 우선성(priority)을 항상 전지했기 때문이다. 부셔가 최초의 윤리학자로 불리는 두 번째 이유는 그가 출판한 최초의 저술에서부터 마지막 저술에 이르기까지 이 지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대책을 논하고 호소했기 때문이다.

부셔는 창조(creation)의 목적뿐만 아니라 재창조(recreation) 즉 중생(regeneration)의 목적 역시 “선한 일(good works)”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이 목적은 “오직 믿음으로만(sola fide)”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개혁신학의 핵심 교리인 믿음에 의한 성화는 부셔 신학의 핵심이기도 하다. 부셔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자.

각각의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선한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만물은 서로를 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섬기되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람은 그들을 선하고 유용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모든 것들은 질서 속에서 심히 좋은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모든 피조물 앞에 분을 보이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즉 사람은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직 그 이웃과 형제의 안녕만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만물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지시한 대로 우리 인생이 바른 질서 속에 세워지려면 우리는 각자 선행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 각자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완성인 사랑이란 자신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든 친구든 항상 타인의 경건과 안녕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처음 창조 되었던 때, 즉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던 당시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를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오직 믿음만이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줄 수 있고 알려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신자들의 나타남은 다른 피조물을 유익하게 할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피조물이 태초의 의로운 본성으로 돌아가는 우주적인 회복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

어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통해 사람들을 아버지의 자녀됨과 은혜의 자리에 다시 세우셨고, 그 결과 그리스도께서 태초의 세계 질서에 따라 성령으로 그들을 재창조하셨는데, 이것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태초의 질서에 따라 모든 피조물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회복은 각자가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정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성령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듯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의 형제로 알고 그들을 섬기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목적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율법과 예언서를 통해 우리에게 그러한 사실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서 떼어 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로 섬기도록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최고 관심사는 아버지의 고상한 최선의 뜻을 따르는 것이어야만 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지킬 때, 비로소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될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확신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중생시키고, 하나님의 올바른 질서로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참된 믿음은 거짓된 사랑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거짓된 사랑이란 이생에 대한 사랑, 즉 명예와 재물과 쾌락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사랑은 이웃에 대한 참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많은 사람들을 방해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를 그런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위해 명예나 재물, 혹은 쾌락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도 참된 신자에게는 작은 일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즉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창조되었던 본래의 바르고 신적인 본성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피조물을 유익하게 하고 섬기되 결국 우리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음으로써 가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자기부인을 실천하는 것이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자신을 드리는 것이며,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웃을 위해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믿음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참되고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며 전혀 믿음이 아닙니다... 즉 우리는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써 복을 받고 필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전부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선행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선행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지만 선행이란 우리 스스로 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 우리를 미리 준비시키셔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신 결과입니다... 만일 신자가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런 선행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면 그는 게으르거나, 자신에게 유익한 것만을 찾거나 행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인데, 단지 중요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또한 분명히 선행 존재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분명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듣고 읽으며 부지런히 묵상하고 말씀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아무도 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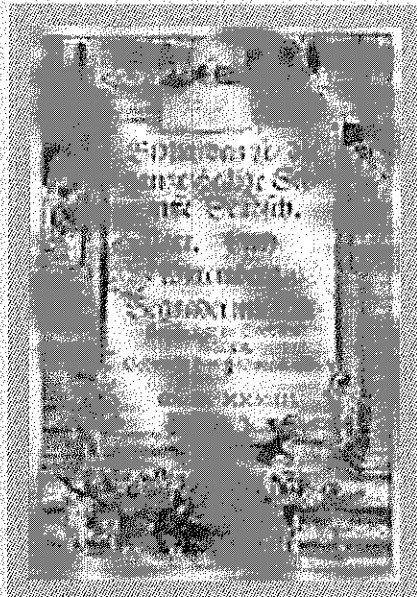
를 말씀에서 떼어놓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완전케 하고 복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낳고 믿음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그 열매로 선한 행실을 낳습니다.

• 인용문 출처 : 황대우 (편저), 『삶, 나 아닌 남을 위하여: 마르틴 부씨의 기독교 윤리』(서울: SFC출판부, 2007), 19-57. = 원문: *Martin Bucers Deutsche Schriften I* (Gutersloh: Gutersloher Verlagshaus Gerd Mohn, 1960), 46-67.



## 루터와 성경의 명료성

루터는 비텐베르크 교회(Wittenberg Stadtkirche)에 모여든 예배자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 말씀의 빛이 우리 얼굴에 직접적으로 비춤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의 혼계와 양육을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한다면, 무엇을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는 마치 사람이 의도적으로 밝은 태양을 향해 눈을 가리거나 문이나 창으로 태양을 가리고 아무 것도 볼 수 없다고 불평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LW 24, 92) 루터의 이 주장은 자신의 개념



에 의해 증득되어 혼란스러운 에라스무스(Erasmus)와 같은 자들을 향해 주어진 것이었다. 즉 사람 편에서의 어두움은 “성경의 잘못이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아주 분명하므로 어린 아이라도 이를 이해할 수 있다.”고 루터는 설명하였다.(LW, 16, 242; WA 31<sup>2</sup>, 175; 이사야 29:10 주석)

이렇게 성경의 내재적 명료성(*claritas*)에 근거하여 성경의 해석자에게 주어진 과제는 복잡한 해석학적 과제가 아니라 단순한 설명(*enarratio*) 또는 전개해 보여 주는 것(*unfolding*)이라고 보았다. 그

루터의 적수로 널리 알려진 에라스무스는 성경이 불분명하고 난해하다고 생각했다. 루터는 이런 생각을 지닌 에라스무스와의 논쟁이 끝나자 성경의 명료성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즉 “성경은 그 자체로서 탁월한 일치를 이루고 있으며 모든 곳에서 항상 일정하게 일관적이다”라고 밝혔다.(LW 3, 247; WA 43, 51)

는 삼위일체에 관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주어진 그대로 해석하지 않은 채 두는 것이라고 보았다.(LW 24, 228)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본질의 통일성과 그 인격에 있어서 삼위성을 동시에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루터의 적수로 널리 알려진 에라스무스는 성경이 불분명하고 난해하다고 생각했다. 루터는 이런 생각을 지닌 에라스무스와의 논쟁이 끝나자 성경의 명료성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즉 “성경은 그 자체로서 탁월한 일치를 이루고 있으며 모든 곳에서 항상 일정하게 일관적이다”라고 밝혔다.(LW 3, 247; WA 43, 51) 그는 사도들의 성경관을 예로 들어 에라스무스에게 성경의 명료성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사도들이 그들이 설교하는 바가 성경에 의해 증명된다고 말할 때 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이는 그들이 스스로가 지닌 어두움을 성경이 지닌 더 큰 어두움 아래 숨기려 하는 것인가?” 루터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 한다: “이러한 모든 사실들이 사도들이 그리스도 자신과 같이 그들이 주장하는 바의 진실 여부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거로서 성경에 호소함을 뜻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양심을 가지고 성경의 주장들이 불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 “만약 성경이 불분명하고 반복적이라면, 왜 성경이 하나님의 행위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인가? 확실히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애매모호함과 불확실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 ... 완전한 명료성과 성경의 평이함을 부인하는 자들은 우리에게 단지 어두움만 남겨줄 따름이다. ... 성경의 모든 부분들에 대하여 그 중 일부가 애매모호하다는 주장을 허락하지 않는다.”(WA 18, 654-56)



## 루터의 노예의지론

에라스무스가 주장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반박하는 책으로 평가되는 루터의 <노예의지론(De servo arbitrio)>은 루터의 신학을 개괄함에 있어서 적합한 책으로 알려져 있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 루터는 사실상 다른 어떤 곳에서도 성경의 명료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Friederich Beisser, *Claritas Scripturae bei Martin Luther*)고 평가된다. 에라스무스는 성경 자체가 불분명하고 애매모호하므로 성경에서 명료성을 찾는 것은 최종적으로 자유 의지에 근거한 인간의 이성적 판단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에라스무스의 주장은 루터에게 너무 주관적인 판단이며 신비주의적인 경향을 지닌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는 에라스무스의 <자유의지론(De libero arbitrio)>에 대항하여 성경의 명료성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루터의 성경의 명료성에 대한 이러한 주장 이면에는 그의 신론에서 비롯된 이중적 진실이 그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 즉 하나님이 비록 숨겨진 하나님 (*deus absconditus*)이시지만 스스로가 이러한 상태에 머무르지 않기로 작정하셨고 그의 구원적 의지와 능력을 분명하게 계시하기로 작정하셨음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분명하게 계시하셨다는 사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여화되었으며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복음의 명료성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루터가 내세우는 성경의 명료성의 핵심적 사항이 복음의 명료성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Beisser, *Claritas Scripturae bei Martin Luther*, 75ff)

## 우화적 해석과 문자적 해석

그의 창세기 주석에는 루터가 지닌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내재적 명료성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잘 드러나 있다. 루터는 자신이 훈련받았던 성경에 대한 우화적 해석법을 버렸다. 그는 모세가 신비적이며 우화적인 언어로 사실적이며 역사적인 스토리를 묘사하였다는 사고를 거부하였다. 루터는 성경의 본문이 하나님께서 우리

에게 '우화적 피조물과 우화적 세계에 대하여 말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 피조물과 우리의 감각에 의해 파악 가능한 가시적 세상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모세는 '창을 창으로' 부르고 있으며 낮과 밤을 우화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똑 같이 사용하였다고 그의 창세기 1장 주석에서 밝히고 있다.(LW 1, 5; WA 42, 4)

루터는 또한 상징적 언어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으며 성경이 이러한 개념을 사용한다는 사실에 익숙해 있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반석' (고전 10:4)을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단어로, 베드로가 '홍수' (벧전 3:21-22)를 세례로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하였던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루터는 모든 것을 우화로 바꾸어 버리는 성경 해석과 성경의 핵심이 해석되지 않은 채 내버려 두는 해석을 모두 거부하였다.(LW 2, 150f; WA, 42, 369f) 성경을 자신의 성급한 생각을 지지하는 도약대로 사용하는 모든 자들에게 경고하면서 루터는 그들이 지닌 이러한 태도는 성경이 언급하는 간단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경멸과 더불어 우화적 해석을 선호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다.(LW 2, 164; WA, 42, 377) 그는 우화에 대하여 "역사와 일치하지 않을 때 우화는 파괴적인 것이지만, 특히 역사의 위치를 점할 때 더욱 그러하다."고 설명하였다.(LW 5, 345; WA 43, 667)

루터의 이사야 주석, 특히 1장에서 39장까지에 대한 주석은 성경의 주해에 있어서 자주 발생하는 우화적 해석을 무비판적으로 사용하는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상력이 풍부한 주해자인 루터는 조심스럽게 어느 정도의 우화를 사용하였다. 마치 그림을 보는 것 같이 사실을 묘사하려면 우화적 표현은 필수적이며 이러한 경우 오히려 이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었다고 이해하였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 묘사된 '죽었던 것으로 여겨졌던 요셉의 귀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가장 분명한 그림을 평행법적 차원에서 발견하기도 하였다.(LW 8, 54; WA 44, 618) 그러나 여기에 드러난 루터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화적 표현이 사용된다면 본문 자체를 퇴색시키거나 해치지 않아야 하며 또한 평이한 문법적 감각과 의미를 파괴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이

를 통하여 본문이 설명되어야 하는 것이지 결코 본문 자체를 새롭게 구성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보았다.(LW 16, 136; WA 312, 97)

루터에게 창세기 주석은 자신의 해석학적 방법을 분명하게 확립시킬 수 있었던 장(arena)이었다. 그는 성경의 명료성에 근거하여 하나의 성경 단락이 반드시 하나의 의미를 지닌다고 보았으며 이로 인해 중세 교회가 내세웠던 4가지 해석법에 근거한 4가지 의미(문자적, 비유적, 영적, 우화적)를 위협하고 무익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거부하였다. 루터는 성경이 우화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구절을 해석하는 기본적 원칙은 단지 그 '역사적 의미'에 의해 설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역사적 의미는 참되고 건강한 교리를 제공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LW 1, 232; WA 42, 173)

### 루터의 성경해석 원리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루터는 항상 기본적 전제 조건하에 이를 수행하였다. 이 전제 조건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J. Koestlin, *Theology of Luther*, II, 268) 첫째, 종교적 진리가 성경에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이미 확립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둘째, 성경은 가장 밝고, 가장 순수하고, 가장 완전한 그 자체의 빛 아래 서 있으므로 더 이상의 조명이 필요하지 않으며 더욱 인간 편에서의 조명이 필요하지 않음을 뜻한다. 그는 자연에 주어진 일반 계시가 참된 것이지만 성경에 주어진 계시의 진리에 비하면 약하고 희미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셋째, 루터는 성경의 명료성과 의사소통의 상식적 법칙, 문법의 올바른 사용이 성경의 주된 메시지와 일치하는 의미 있는 해석을 위한 성경의 자체적 열쇠라고 밝힌다. 기독교적 집중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려는 합리적인 모든 크리스천은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 교리와 상이한 의미나 해석을 도출할 수 없다고 보았다.(WA 36, 491)

그는 성경 본문의 의미가 지닌 진정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와 헬리아어를 아는 것이 성경 해석에 필수적이라고 믿었다.(LW 4, 154; WA 43,

237) 이는 임의적으로 어리석은 의미들이 소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LW 4, 351; WA 43, 389) 루터는 이 언어들 자신이 대학의 강단에서 가르치기 시작한 후에 배우게 된 사람으로서, 이 언어들 마스터 하는 것의 중요성을 즉각적으로 인식하였는데 이는 단지 번역을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더욱 조심스럽고 정확한 주해 작업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왜냐하면, “언어에 대한 경험이 없는 자들은 단어들의 의미를 분산시키고 애매모호함과 혼돈을 초래하게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LW 6, 53; WA 44, 39) 그러나 그는 이렇게 히브리어와 헬리아어를 익히고 마스터하는 일이 신학교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믿었다.(LW 45, 363f) 루터는 또한 모국어어를 사용하여 이런 언어에 대한 강조점이 표현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믿었다. 따라서 성경 원어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이 원어의 의미들을 정확하게 관용적인 독일어, 또는 일반인들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믿었다.

그는 성경이 지닌 의미를 단순하게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과제라고 보았다. 그는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의미가 난해하지 않게 즉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성경을 허락해 주셨다고 믿었다. 따라서 루터는 성경 해석에 있어서 랍비들처럼 방황자가 되거나 정처 없는 나그네가 되지 말고 단순한 이해를 추구하고 악마적 궤변을 피하라고 경고하였다.(LW 8, 209; WA 44, 731f) 이런 단순한 의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성경의 문맥을 이해하고 전후관계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루터는 생각했다. 루터에게 문맥을 무시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그 본문을 엄청난 경멸로서 대하는 것’이었다.(WA 18, 713) 루터는 이런 관점에서 <교회의 바벨론 포로(*The Babylonian Captivity of the Church*)>라는 책에서 천주교의 성경해석에 드러난 교황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천사나 사람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폭력이 가해져서는 아니 된다. 말씀은 가능한 한도 내에서 가장 단순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문맥이 구체적으로 이를 강요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문법적 용례와 적합한 의미와 상관없이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는 우리의 적에게

모든 성경을 조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LW 36, 30; WA 6, 497f)

### 성경해석의 중심점

만약 루터에게 “성경 주해를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면 그는 틀림없이 다음과 같이 답했을 것이다: “인간이신 그리스도의 구유에 머무르는 것이 더 안전할 것이다.”(LW 2, 45, WA 42, 293) 이는 성경 주해의 중심점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루터가 주장하고 기록하였던 모든 것을 지배하였던 강조점에 해당된다. 루터는 만약 성령이 성경을 통해 내세우고자 했던 중요한 목적이 있다면, 이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성경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하다.” 그는 성령이 사람의 마음속에 거하지 않는다면 “성경의 고귀한 단락들이 읽혀질 수 있으나 이해되지 않은 채 밤낮으로 소리만 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경을 단순한 문자주의나 역사주의의 관점에서 또는 이미 죽은 것과 같은 불신적 태도로 해석하려는 자들에 대하여 성령은 성경의 ‘영적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고 루터는 주장했다.(LW 48, 25) 성령은 올바른 해석자이므로 우리는 그의 부지런한 학생이 되어야 마땅하며 그로부터 인도함을 받기를 바라야 한다고 강조했다.(WA 21, 230) 또한 성령은 성경의 문을 여는 문지기이시며 성경에 대한 가장 훌륭한 안내자이신데 이는 그가 성경을 기록한 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령은 부드럽고 강하며 확실한 안내자로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신다.

신앙의 항목은 명료성과 더불어 주어진 것인데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원수 된 자를 포함하여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 의해 의도된 바를 놓칠 수 없다. 이 신앙의 항목은 마치 금반지와 같은데 이는 불분명하고, 개별적인 단락들을 포함한 모든 것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신앙의 유추(analogy of faith)에 이르게 만든다. 이런 단락들이 성경에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루터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 사실이 루터를 방해하지는 못하였다. 왜냐하면 루터는 잘 알려지고 쉽고 명료한

본문에서 출발하여 잘 알려지지 아니하고 난해한 본문으로 나아간다는 원칙, 이를 통하여 성경의 명료성이 보장되는 원칙을 늘 내세웠다. 루터는 신앙의 유추와 성경의 유추(analogy of Scripture)라는 이중적 차원을 견지하였으므로, 성경의 모든 해석은 이 두 가지 유추에 의하여 검증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유추는 서로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 것이 아니라 사실상 하나인데 이는 이들이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구원이라는 중심적 주제에 의하여 합일되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으로 루터는 신앙의 유추를 더욱 광범위하게 적용하여 이것이 “그리스도, 교회, 신앙, 그리고 말씀의 사역”을 포함하도록 만들었다.(LW 2, 164; WA 42, 377)

### 성경의 명료성과 신앙

성령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위해 성경의 의미를 열어 주시는 분이시다. 마음속의 믿음은 성경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 루터는 신앙을 항상 말씀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파악하였다. 말씀의 적합성과 유효성은 인간의 믿음에 의존적인 것이 아니다. 말씀은 신앙 이전에 이미 주어진 것이며 항상 교회보다 선행한다. 따라서 성경의 가르침과 복음의 구원하는 말씀을 수용하기 위해서 신앙이 필요하지만, 신앙은 그 자체로서 성경의 명료성을 결정짓는 요소나 그 내용을 구성하는 요소가 결코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그의 신실한 제자들의 손에 위탁하셨고 이들은 그 말씀을 전해주었을 뿐 아니라 이를 불신자들에게 설명하기에 이르렀다. 바이서는 믿음과 성경의 명료성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이 성경의 외적 명료성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한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답하기를 “아무런 의심 없이 루터는 이를 제외할 것이다. 믿음이 말씀의 명료성에 근거한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며 정반대는 성립되지 않는다.”(Beisser, *Claritas Scripturae bei Martin Luther*, 89) 따라서 만약 이단이나 심지어 위선자가 어떤 본문을 자신의 소용을 위해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성경의 명료성이 지닌 현실성과 그 의미



를 박탈하지 못한다. 사실상, 성경의 명료성과 이에서 비롯되는 빛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는 곳에서 그 빛을 가장 강하게 발휘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단지 크리스천의 믿음에 달렸다고 주장하도록 만들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이런 주장은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이라고 루터는 믿었다.

### 율법과 복음

루터는 자주 성경의 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과 복음이라고 주장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그 자체로서 인간과 그의 죄를 향해 위협하는 율법과 인간을 위로하기 위해 은혜로 이루어진 약속으로 나누어진다고 루터는 믿었다. 루터에게 신약은 구약의 해설서이었다. 구약의 주제가 신약의 지식에 관한 것 밖에 없으므로 “구약의 전 부분(whole portion)이 명료하다.”고 루터는 주장했다.(LW 3, 73; WA 42, 600) 창 15:6과 이에 언급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주석에 있어서 루터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12장까지 주장했던 내용을 근거로 “사도 바울이 여기에 가장 적합한 해석자이다”라고 밝히고 있다.(LW 3, 18; WA 42, 561) 그는 로마서가 지닌 교리적 풍부함에 주목하면서 로마서가 성경의 문이며 열쇠라고 선언하기도 하였다.(LW 7, 280; WA 44, 507) 이는 그가 성경 이해의 지평을 로마서에만 국한시켰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성경의 잘못된 해석이 가져다 주는 오류의 엄중함, 특히 신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잘못된 구약 해석을 가져오는 경우를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면서 이에 대하여 경고하였다. 문법에 대하여 실수하는 것과 그 주제에 관하여 실수하는 것은 그 경중에 있어서 엄연히 다른 것이라고 보았다. 그 주제를 잘못 파악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며 이는 특히 성경의 명료성을 파괴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고 루터는 판단하였다.

### 성경의 명료성과 성경의 검증

코이만은 “성경은 스스로의 해석자일 뿐 아니라 또한 스스로를 자신의 기준에

의하여 검증하는 스스로의 비판자이다.”라고 루터의 성경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였다.(W. Kooiman, *Luther and the Bible*, 225) 루터는 성경을 문자들의 집합체로 국한하여 이에 얽매이는 문자주의적 해석가는 아니었다. 또한 그는 성경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여러 곳으로 찾아다니는 방황자도 아니었다. 그는 성경의 외적 형식에 얽매이는 부자유함에서 해방되었을 뿐 아니라 또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경외감에 사로잡힌 자이었다. 루터는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최대한의 존경심을 지닌 사람이었고 이와 동시에 성경이 스스로를 비판하는 절대적 기준을 지닌 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그에게 성경의 명료성은 사실상 성경의 해석자에게 자유로 인식됨과 동시에 이 명료성은 성경의 기준에 대한 준수를 명령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성경의 메시지가 지닌 명료성은 그 자체로서 모든 성경 해석의 기준이 됨과 동시에 그 자유를 보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자유가 어떤 무질서를 방관하지는 않음을 뜻한다.

인간의 이성은 명료성에서 비롯된 자유를 망입으로 오해하기 쉽다. 만약 인간의 이성이 신앙의 항목에 의해 공격을 받게 된다면 이성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침묵하기를 배워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침묵에 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모든 성경이 불합리하고 부조리하며 또한 의미도 없고 단지 신비한 것이 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말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루터는 “모든 이단들은 자신의 이해를 편리한 것으로 받아들인다!”(WA 18, 749)고 주장했던 것이다.

• 약어설명 : LW = Luther's Works

WA = Weimar Ausgabe (Luthers Werke)



개혁신학 양서 연재 1

# 성령의 인치심

**이 글은** 화란 아플도른 신학대학의 교회사 명예교수인 Willem van't Spijker (1926- ) 박사의 *De verzegeling met de Heilige Geest* (Kampen: De Groot Goudriaan, 1991) 라는 단행본의 pp. 47-51을 번역한 것이다.

판 스파이커 교수는 1971년 화란자유대학교에서 '마틴 부서의 직분론'(De ambten bij Martin Bucer)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는데 이 졸업논문은 학문적 탁월성을 인정받은 최우수 성적(*magna cum laude*)을 받았다. 그는 유트레흐트(Utrecht) 지역의 화란기독교개혁교회(Christelijk Gereformeerde Kirken, CGK)에서 다년간 목회 후 1972년부터 교단 신학대학인 아플도른 신학대학(Theologische Universiteit van CGK in Apeldoorn)의 교회사 교수로 25년 간 봉직한 후 1997년에 은퇴하였다.

칼빈과 부서를 중심으로 종교개혁 연구에 평생을 바쳤으며 많은 저서들을 남긴 그는 특히 부서 연구와 칼빈을 포함한 종교개혁의 교회론 연구에 있어서 세계적 명성을 지닌 학자이다. 현재 활동 중인 그의 제자들로는 아플도른의 Herman Selderhuis 교수, 장신대의 최윤배 교수 등을 들 수 있다.

주요 저서로는 *The Ecclesiastical Office in the Thought of Martin Bucer* (E. J. Brill), *Calvin: Die Kirche in ihr Geschichte* (V & R), *Luther en Calvijn*, *Luther: Beloïte en ervaring*, *Reformatie en geschiedenis*, *Triptiek van de geschiedenis*, *Geest, woord en kerk*, *Gemeenschap met Christus* 등이 있다.

저자의 동의를 받아 본서를 계속해서 번역 연재할 예정이며 최종 단계에 이르러 단행본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앞으로 아직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다른 탁월한 개혁주의 신학작품들을 또한 번역 소개할 계획이다.

그리스도와 자신의 말씀 가운데 계시 하나님께서 고난을 말씀하시려면 누가 그가 신뢰할만하다고 믿을 것인가?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 가운데서 정당화되어야 한다(시 116).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스스로를 계시하시을 하나님으로서 신뢰되어야 한다. 그러나 세상은 이렇게 믿지 않는다. 오히려 세상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부른다. 그러나 신자들은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인치심 레이는 곧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신뢰할만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인치심 행위가 일어나게 되는가? 어떻게 신자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확신에 도달할 수 있는가?

## I. 마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와 성령의 인치심

종교개혁은 로마 가톨릭에 맞서서 성령의 사역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강조는 재세례파들에게도 발견된다. 따라서 종교개혁 시대에 관해서 항상 말씀과 성령을 함께 언급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로마 가톨릭에 대항하여 성령이 강조되었다.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이 신앙의 문

제에 있어서 교회의 권위를 주장했기 때문이었다. 교회가 믿음을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게 된다는 것이 로마교의 주장이었다. 그렇다면 이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성령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뜻한다. 이런 주장에 맞서서 종교개혁은 믿음을 찾을 수 있는 근거가 성령의 사역에 놓여 있는 것이지 집단적으로 믿음을 가르치는 것에 기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이는 믿음의 근거가 교회의 교제 내에서 개인적임을 뜻한다.

또한 재세례파들과의 논쟁이 벌어



졌다. 이들은 믿음의 근거를 인간의 마음, 즉 성령의 내적 음성에서, 그리고 구원의 체험과 관련된 감정에서 찾았다. 종교개혁은 이들과 대항하여 말씀에 관심을 집중하였다. 이는 종교개혁의 성령에 대한 호소가 제한적이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호소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에 대한 호소임을 뜻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로마교와 재세례파와의 투쟁 가운데 말씀과 성령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확신의 기저로서 이렇게 두 가지 기초를 언급하는 것은 정당하다.

우리가 이러한 주제를 논함에 있어서 루터와 츠빙글리(Zwingli), 그리고 루터와 칼빈에게 있어서 강조점의 차이를 기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루터는 항상 열광주의자들에 대하여 어려움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루터가 불행하였던 시기에 나타나서 그를 괴롭혔다. 루터는 그들이 죄를 짓는 가운데 성령을 논한다는 사실을 수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루터는 성령 사역의 종류와 성격에 대하여 적절하게 성경의 본문을 설명하도록 요청받았다. 그래서 그는 성령의 인지심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한다. 이는 그가 구원의 확실성과 관련하여 성령의 사역을 논의함을 뜻한다.

루터는 이 주제를 소개하기 위하여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라는 요한복음 3장 33절 말씀을 사용하였다. 이 본문에 대해서 루터는 말씀을 가볍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진지함으로 받아들이며 살고 죽는 것이 말씀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참되신 분이라고 인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예외적이며 어리석은 것으로 들린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그가 신뢰할만하지 않다고 인칠 수 있다는 뜻인가? 이를 달리

표현하면 우리의 믿음 여부에 따라서 그의 신뢰성이 결정된다는 뜻인가? 그러나 루터는 “나는 우리가 그의 인을 받았다고 항상 해석하며 우리를 이를 정반대로 읽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처음부터 비참함이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대로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사실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사람들이나 세상이 위엄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실과는 관계없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자신의 말씀 가운데 계시 하나님은 고난을 말씀하신다면 누가 그가 신뢰할만하다고 믿을 것인가?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 가운데서 정당화되어야 한다(시 51:6).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신뢰되어야 한다. 그러나 세상은 이렇게 믿지 않는다. 오히려 세상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부른다. 그러나 신자들은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인치는 데 이는 곧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신뢰할만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치는 행위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 어떻게 신자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확신에 도달할 수 있는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루터는 주제를 바꾸어서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논의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참되시며 그의 말씀에 있어서 완전히 신뢰할 만하다고 인치게 된다. 그러나 이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심어주는 방법을 통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설교와 설교의 말씀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메시지를 사람들의 마음 속에 불어넣으시는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진리가 있다.’고 외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성령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불어넣으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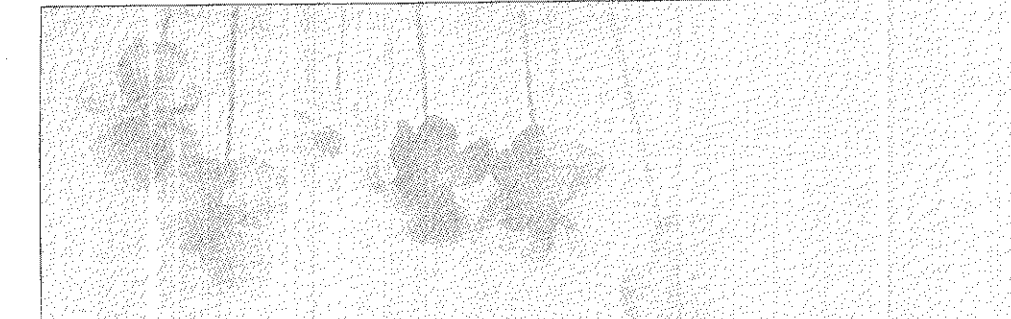
루터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가 인치다'와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두 가지 개념을 서로 연결시킨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인치시는 분은 성령 이시다. 사람들이 단지 믿음에 의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내적 서클(circle)은 이런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다. 루터는 성령의 이러한 사역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읽게 된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엡 4:30)'. 그렇다면 어떤 목적으로 인치심을 받았는가? 주님을 위해서 인치심을 받은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기업에 관한 보증에 상응하는 성령을 받았는데 그는 입술의 말씀을 통해 당신의 마음속에 거하신다 (엡 1:13, 14). 그는 그의 은사를 사용하여 이를 기록했고 마음에 새겼는데 이를 통하여 보증, 인 그리고 확실함에서 비롯되는 한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돈을 축적함으로써 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제 당신은 인치심을 받았고 보증을 받아서 믿을 수 있게 되었고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내가 선택함을 받은 자로 여겨질 것을 믿는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무덤에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을 믿는다.' 이런 방식으로 신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것을 인지게 된다. 신자가 내적 확신을 지니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신뢰할 만하다고 말하도록 성령께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인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치는 행위와 말씀에 의한 성령의 인치심의 결합을 통하여 루터가 말씀을 강하게 요청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는 이 사실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없다. 말씀은 아주 탁월한 은혜의 수단이다. 믿음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면, 이는 반드시 약속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 이

순서를 바꾸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믿음에 의해 수용되지 않는다. 말씀과 믿음, 믿음과 말씀이 서로 작용하는 바로 이 곳에 성령께서 그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에 대해 루터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말씀하신다." 이런 방식으로 말씀과 기록이 함께 작용한다. 입을 통해 전해진 말씀은 기록된 말씀보다 더 효력적이다. 기록된 언어라는 수단을 통하여 사람들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들과 참된 교제를 나눌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말씀과 인치심을 통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손에 펜을 잡고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놀랍게 변화된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그의 메시지를 마음속에 심어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감동을 받게 된다. 그들은 보증, 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뢰성에 대하여 일점의 의심도 지니지 않게 된다. 하나님이 신뢰할만하다는 지식은 마음속에 주어진 놀라운 보물과 같다. 그러나 말씀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내던져 버리고 대신 악마가 자리잡게 만드는 자이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그의 말씀을 보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말하는 사람이다: "당신이 거짓말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신뢰할 수 없소" 그래서 로마서 4장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롬 4:20). 그의 마음에 분명하고 아름다운 글자로 인을 봉했던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새겨진 인을 소유하였던 것이다: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할만하다고 믿습니다. 내가 그 분의 말씀이 참되다고 말함으로써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할 만하므로 그 말씀에 전적으로 영광을 돌렸다. 동시에 그는 마음에 말씀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시는 성령께 모든 영광을 돌려 드렸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인데 이는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런 믿음의 문제가 아니다. “믿는 것, 참되게 믿는 것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 그들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죽음을 마음속에 그리며 믿음을 지니고 있을 따름이다. 그들은 마치 까마귀와 앵무새가 말하듯이 이에 대해 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참되다는 사실을 완전히 납득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그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어는 것이 필요하다. … 믿음은 살아있는 문서, 인, 마크, 그리고 확신이어야 하는데 이는 또한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찾아오신 것이다. 그는 당신의 마음을 자신의 처소로 삼으신다. 그는 당신의 마음을 천국으로 변화시키신다.”

의롭다고 칭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의롭다고 여겨야 한다. 이는 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섬기는 것을 뜻한다. 인치심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인쳐야 한다. 또한 이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는 것을 뜻한다. 말씀으로 성령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신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아주 먼 거리, 아니 영원의 거리를 메우신다.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확신에 도달하게 된다.

루터의 신학은 말씀의 신학이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 그러나 이는 이론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계시하신다. 그러나 그는 위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를 행하신다. 마리아를 통해 태어난 아기 예수를 통하

여, 세상에 의해 경멸함을 받은 말씀을 통하여 이를 행하신다. 이렇게 루터 신학의 모든 것은 하나가 되어 말씀, 십자가, 그리고 믿음의 신학이 되는데 이는 또한 루터에게 성령의 신학이었다. 우리는 그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참되다고 인친다. 성령께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뢰성을 인쳐 주시는데 이로 인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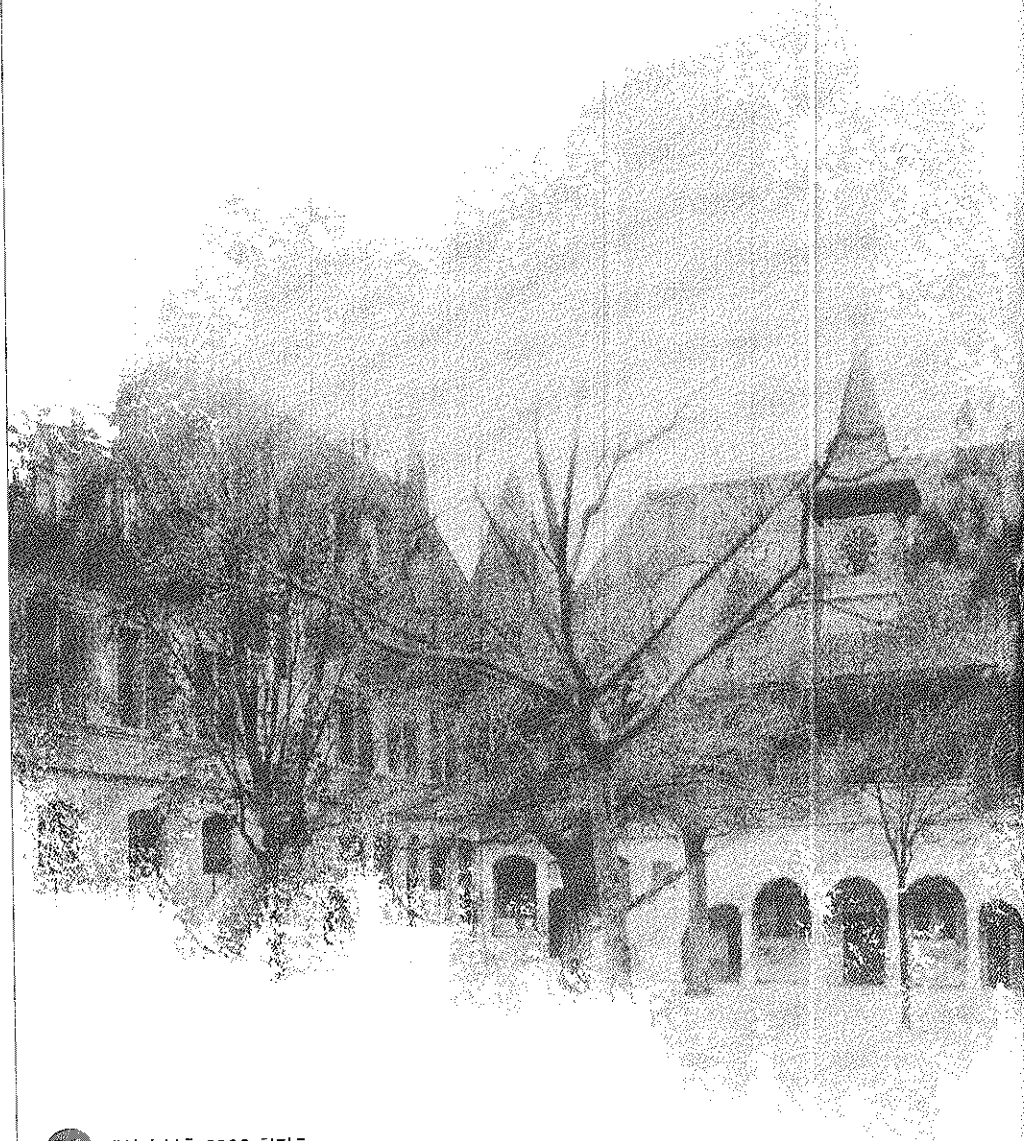
- 다음 호에는 '마틴 부셔' 편이 계속될 예정임



개혁신앙 칼럼 (Reformed Essay)

송영목 | 자살과 그리스도인

편집부 | 근고지영(根固枝榮)과 개혁주의 성화론



현대인과 개혁신앙 1

# 자살과 그리스도인

요즘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헛된 일들을 보면 '절망'이 시대정신으로 서서히 자리 잡아 가고 있

는 것처럼 보인다. 200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무려 24.8명으로 집계되었는데 하루 평균 3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으로 이는 하루 평균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넘어 서는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고령화 사회가 될수록,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을수록, 남성의 가사분담과 전통적인 남성 권위의 상실 및 경제적 경쟁의 증대로 인한 스트레스로 자살률이 높아진다는 분석이 있다.

학자들은 자살의 원인을 크게 '사회 심리적 요인'과 '개인 심리적 요인'으로 설명해 왔다. 사회심리적인 요인은 개인과 집단과의 관계에서 자살을 이해하는데, 산업화 이후 도시에 몰려 든 사람들 가운데 자살률이 현격히 높아졌는데, 공동체의 해체로 인한 소속감 상실, 가치관의 혼란, 규범적 강제가 사라져 감에 따라 자기를 지탱시켜줄 기준이 없는 상태 등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감소시켰고 이는 곧 자살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분석이다.

반면에, 개인 심리적 요인에 의하면, 부모의 충분한 관심과 보호가 결여된 가정의 청소년들은 애정 결핍을 보상 받으려고 자기가 좋아하는 다른 일에 몰두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충동에 쉽게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어른의 경우 도피형 자살(예. 외로움에서 도피), 비밀을 지키려는 자살(예. 업무상의 비밀), 항의형 자살(예. 데모중의 분신), 무엇보다 절

망감이 동기가 되어 자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심리적 요인으로만 자살을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신앙관 혹은 세계관도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데, 사후의 세계를 인정하면 함부로 자살할 수 없지만, 죽으면 끝이라는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죽는 것조차 무서워하지 않고 고통을 벗어나는 방도로 자살을 선택하기 쉽다. 한국처럼 인성교육이 실종된 채, 지나친 경쟁구조 속에서, 청년실업률이 높아지고, 인플레이션 혹은 스테그플레이션을 장기적으로 겪는다면 자살 경향이 심화될 수 있기에 국가 차원의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인**이 직면하는 현대의 복잡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은 일일이 해답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원론적인 해답을 제공한다. 사회-경제적 분석 및 통계 혹은 인간의 심리 분석에서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성도의 신앙과 생활의 표준인 성경 안에서 인간 윤리를 찾아야 한다.

성도의 구원은 통전적이기에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영역과 관련 있다. 기독교인은 자살하면 안 되고, 자살하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기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크리스찬 유명 연예인들은 물론, 심지어 목회자가 자살하는 경우에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 혹은 믿음이 없어서일까? 우리는 그들을 불신자로 단정 지을 수 있는가? 전통적으로 교회는 자살자를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간주하여 교회가 자살자의 장례를 치르는 것을 거부했다. 과연 이것은 성경적인가? 만약 평소에 복음 위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던 성도가 우울증과 같은 정신 질환을 앓다가 일순간 잘못 생각해서 자살했고 회개할 기회 없이 죽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구원론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구원이 사람의 행한 것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정신 질환’에 의한 자살과 ‘인간의 연약성’에 의한 자살을 구별해야 무분별한 감성적인 자살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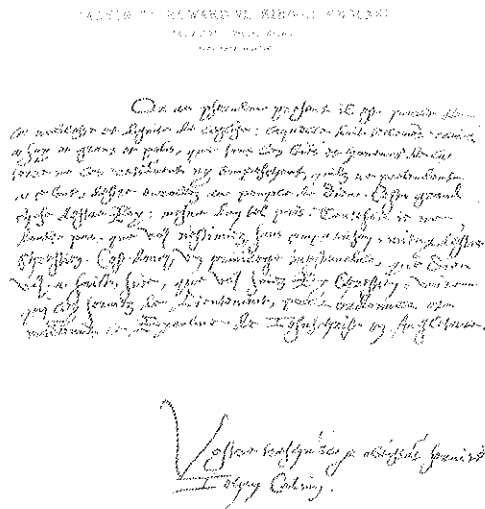
시기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없는 애매한 경우가 있다. 하지만 자살한 자라도 그가 주님을 참으로 믿은 자이며 구원 받기로 예정된 사람이라면 주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용서하시고 간섭하셔서 구원하시지 않을까? 주님의 용서는 인간의 어떤 죄악보다 크지 않은가? 사무엘하 1장에 의하면, ‘활의 노래’를 통해서 다윗은 길보아 전투에서 자살한 사울 왕을 하나님의 용사로 칭송하며 기리고 있다. 만일 우리가 사울이 자살했기에 지옥갔다고 단정짓는다면, 다윗의 이 노래는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지옥 간 자를 하나님의 용사로 보면서 그리워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기 때문이다. 자살자가 생겼을 때도 목회 차원에서 장례해 주고, 유족을 위로하여 구원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확증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교회에서 단순하게 “자살하면 지옥간다”라고 가르치면 자살을 방지하는 효과가 전혀 없다고 말하지 못하겠지만,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듯하다. 이 말을 “자살해도 구원을 보장 받을 수 있으니 괜찮겠구나”라는 의미로 결코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자살은** 성경적으로 옳거나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 우리 전부가 주님의 것이라면, 우리 생명도 주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자살은 주님의 주되심을 무시하는 행위인데, 성도는 자기 생명의 청지기이지 주인이 아니다. 따라서 자살은 비신앙적 행위이며, “살인하지 말라”는 제 6계명을 어긴 중대한 범죄다(참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 68-69문). 신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복종해야 할 사람이기에, 낙심하고 절망하여 죽고 싶은 순간에도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해야 한다(고전 10:13).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어려움도 무의미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려움은 성도의 구원을 이루는 방편이다(롬 8:28). 자살한 사람으로 인해 그의 가족과 주위 사람이 겪게될 마음의 고통을 생각해 보면, 자살은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행동이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데, 이 과정이 힘들기에, 서로 짐

을 나누어야 한다. 이해와 동정으로 열린 마음을 품고 교회 안에서 고민과 아픔을 나누고 서로 도울 길을 찾아야 한다.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마지막 대적인 사망이 승리의 부활 생명에게 삼킨바 됨을 믿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고전 15:54; 살전 5:16-18).

에스겔 16:6에 의하면, “피투성이라도 살라!”라고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다. 이것을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 “전쟁터와 같은 힘든 세상 속에서라도 내가 너를 살려주리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실제적으로 제안해 본다면,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생명의 귀중함과 생명의 청지기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교회는 우울해 하며 외로워하는 자, 특히 성도 가운데 독거노인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상담할 사람을 훈련하여 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다시 가장 기본적인 고백을 확인하자: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미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위로입니다”(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 1 문).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전 15:55, 57. 바른 성경 역).



한자성어와 함께 고찰하는 개혁주의 핵심교리 1

# 근고지영(根固枝榮)과 개혁주의 성화론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쌓아 올린 집과 같다고 말씀하셨는데(마 7:26) 이는 ‘사상누각(沙上樓閣)’이라는 한자성어를 떠올리게 만든다. 그렇다면 그 의미가 정반대에 해당하는 한자성어는 무엇일까? ‘근고지영(根固枝榮)’이 이에 해당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는 ‘나무가 뿌리가 튼튼해야 그 가지가 무성하고 많은 열매를 얻게 되어 영화를 누리게 된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이는 또한 시편에 나타난 다음의 말씀을 떠올리게 만든다: “의인은 종려나무 가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발육하리이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이다. 늙어도 결실하며 잔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시 92:12-14).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 즉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태복음 7장에 단도직입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그 앞에 주어진 상황을 살펴보면 이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얻게 된다. 21절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힌다. 그러나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앞서 13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를 삶 속에서 실천에 옮기는

것은 마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으며 이는 인간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우리에게 죄로 가득한 자아가 있기 때문이며 이 자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기 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좋아 하는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로운 생명을 덧입고 변화 받은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엡 5:24). 우리는 이를 흔히 '중생'(regener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는데 이는 개혁주의 성화론, 특히 칼빈이 말하는 성화론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제공한다.

**칼빈** 성화론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는 <기독교 강요>에서 성화가 옛 사람을 죽이고 (*mortificatio*) 새 사람을 살리는 것(*vivificatio*)이라고 말한다. 이를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게 된다. 성화의 결과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구체적인 삶의 열매로 그 모습을 나타낸다. 성화는 우리를 새롭게 만들 뿐 아니라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도록 만들어간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자기 뜻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하며 여기에 바로 영예로운 삶, 성공적인 삶의 비결이 숨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잠언서의 저자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잠 29:23)고 기록하고 있다. 즉 성화의 길을 걷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의 뜻이 담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될 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경험하게 된다(시 1편).

성화의 결과로 나타난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근고지영'이라는 한자성어와 어느 정도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근고지영'은 나무에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위해서는 뿌리가 튼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화는 중생에서 시작하여 더

욱 완전한 삶을 그 목표로 지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 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덧입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성화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에 해당된다.

'근고지영'은 열매를 통하여 나무가 영화로움을 누리게 된다는 뜻을 지닌 반면에 성화의 열매는 성화의 대상인 신자들을 영화롭게 하기 보다는 오히려 성화의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한다는 점에 있어서 결정적 차이가 드러난다. 이런 맥락에서 다윗 왕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며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대상 29:12-13).

**성도의 삶이 성화의 삶이어야 하는 이유는 명예와 부를 추구하여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를 성화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에 놓여 있다.**

개혁주의 전통의 대표적 신앙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the Westminster Confession)>(1649)는 이런 맥락에서 우리 삶의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성화된 신자의 삶은 자신이 풍성함을 누리고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는 인본주의적 삶이 목표가 아니라 인간의 창조주이시며 우주 만물의 대주재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 분만을 영화롭게 하는(*Soli Deo gloria*) 분명한 목표를 지니고 있음이 항상 고백되고 널리 전해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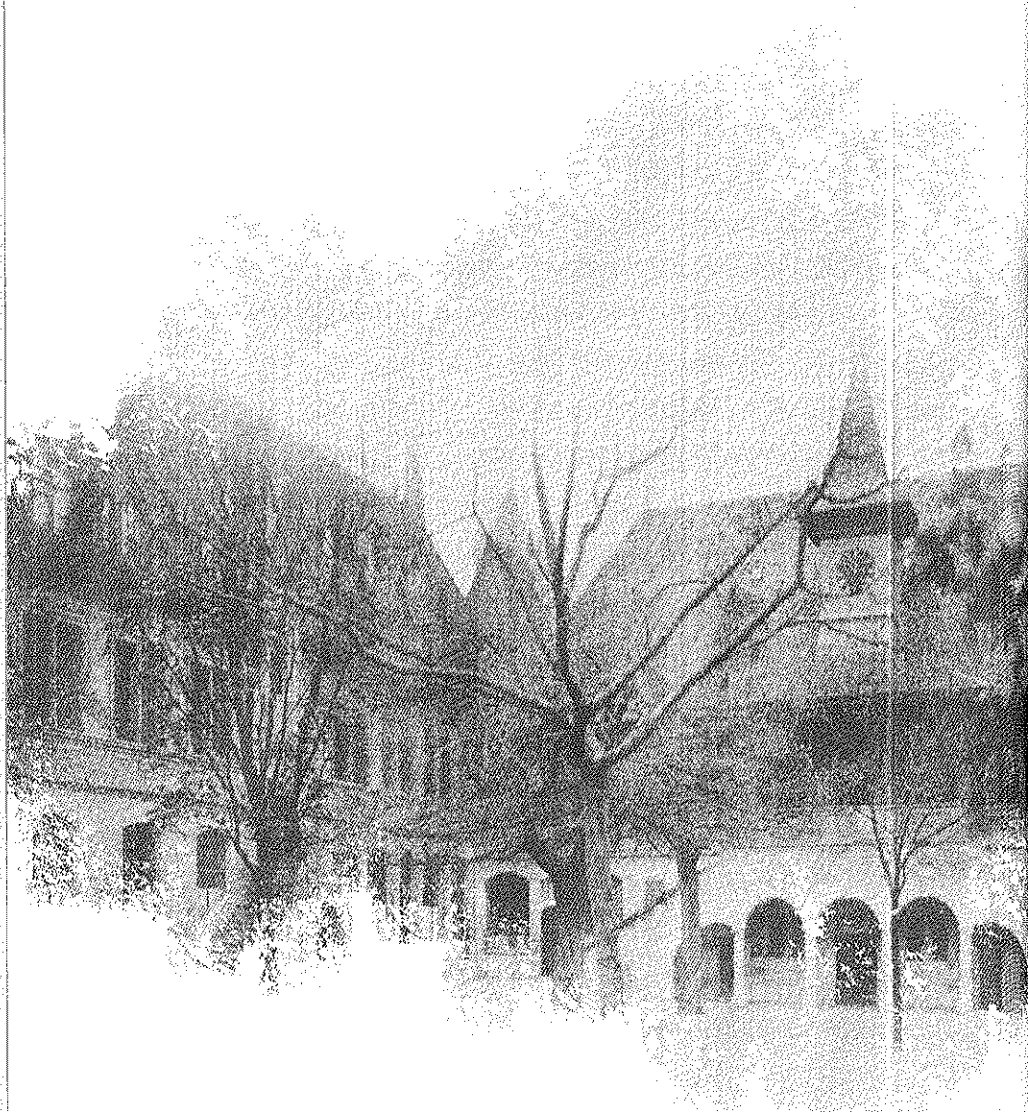


서평 (Book Review)

이성호 | 김재성, 『성령의 신학자 존 칼빈』

이신열 | 원종천, 『존 칼빈의 신학과 경건』

황대우 | 안더스 니그렌, 『아가페와 에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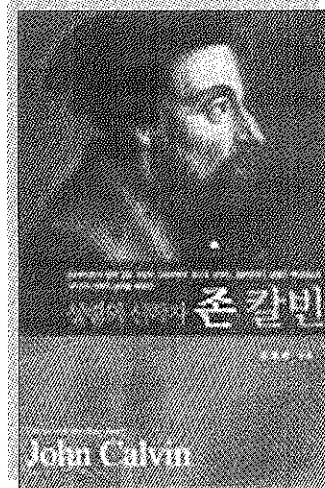


# 성령의 신학자 존 칼빈

김재성 지음,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4



김재성 교수 (합동신학대  
학원 대학교의 조직신학 교수  
를 역임하였고 지금은 목회자  
로 섬기고 있다)의 『성령의 신  
학자 존 칼빈』은 칼빈의 신학을  
고귀하게 생각하는 모든 이들  
에게 하나의 큰 기쁨이 될 것이  
다. 비록 이전보다는 칼빈에 대  
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긴 하였지만, 여전히 한국어로 쓰여지거나 번역된 책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 점에서 한국인이 쓴 제대로 된 칼빈 연구서가 단행본으로  
출판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의의가 있다 하겠다.



『성령의 신학자』의 가장 큰 장점은 뚜렷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씌여졌다는 것이다. 사실, 이것은  
모든 책의 존재 목적이기도 하다. 저자는 개혁신  
학이야말로 참된 신학이며 바른 신학이라는 확  
신을 가지고 있다 — 이런 확신은 이 책의 곳곳  
에서 쉽게 감지될 수 있다. 개혁신학의 이런 정  
통성은 신학의 한 부분인 성령론에 대하여도 예  
외가 될 수 없다고 저자는 생각한다. 그 결과 이  
책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한국교회에서 막연  
하고 근거없이 주장되는 “개혁주의는 성령론이

약하다”는 ‘카더라 통신’의 허구성을 폭로하는 것이다.

저자는 미국의 정통적 장로교 신학교인 웨스트민스터에서 수학하면서 칼빈 신학의 진면목을 체험하였고, 특히 칼빈의 성령론의 풍성한 진리에 대하여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 이후 칼빈의 신학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였고, 그 결과 한국교회가 칼빈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통념적 이해가 얼마나 피상적인가를 알게 되었다. 『성령의 신학자』는 이런 잘못된 견해를 교정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시도이다. 저자는 서문 격인 제1장에서 독자들에게 칼빈을 “예정론에 사활을 건 신학자”라는 편견을 “제발 거두어 주시라고” 호소하고 있다.

사실, 20세기 초 개혁주의 신학자 중 가장 뛰어난 인물 중의 한 사람인 워필드(B. B. Warfield)가 칼빈을 성령의 신학자라고 부른 이후, 칼빈 연구가들에게 있어서 이 문구는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하나의 진부한 명제가 되었다. 이것은 학계와 일반 상식 사이의, 더 구체적으로 신학 연구와 교회 현실과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즉, 아무리 신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연구가 상아탑에 머무를 때, 일반 신자들은 그 연구의 결과와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게 된다. 그런 점에서 『성령의 신학자』는 칼빈 신학의 대중화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이라 확신한다. 무엇보다도 이 책은 쉽게 읽혀진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목이 성령의 신학자이기는 하지만, 저자가 밝혔듯이, 이 책은 칼빈의 성령론만을 다룬 책이 아니다(p. 16). 이 책의 목차를 대략 보도록 하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나 ‘그리스도와와의 연합과 성령’(제2장)은 성령의 본질적인 사역이니 당연히 이 책에서 다루어질 것이라 기대되지만, 예상하기 쉽지 않은 다양할 주제

들도 발견할 수 있다: 성경과 성령(제4장); 율법과 복음(제6장); 성례와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제8장); 기도와 언약, 성령의 도우심(제9장); 설교와 성령의 기쁨부음(제10장). 이 책에서 다루어 진 내용들은 칼빈 신학의 중요한 특성들을 거의 다 망라하고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이 책은 칼빈신학을 위한 입문서로서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한다.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칼빈은 성령의 다양한 사역을 통하여 성령의 온전하고도 진정한 모습을 확립시켰다는 것이 이 책의 중요한 논지이다. 이것은 성령이라고 하면, 성령의 특별한 은사만을 강조하는 오늘날의 피상적인 성령의 이해와 얼마나 대조되는가를 보여 준다. 그리스도와 신자를 연합시키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내적 조명으로 깨닫게 하시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신자들로 하여금 성취하게 하시고, 승귀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이 땅에 임재하게 하시는 이 모든 풍성한 성령의 사역들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비록 이 모든 것들이 칼빈 자신의 힘으로만 정립한 신학적 이해들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의 저술을 통해 개혁신학에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모든 책들이 그렇듯이, 이 책 역시 한 두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 책이 다른 칼빈 연구서들보다 그 당시 상황 혹은 맥락 속에서 칼빈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런 부분에 더욱 철저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특히, 칼빈의 대적 뿐만이 아니라 칼빈의 동료 신학자들, 그리고 그의 후예들과의 관계가 보다 더 자세하게 다루어졌어야 한다. 이것은 오늘날 칼빈의 신학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방법론이다. 이전의 칼빈 입문서들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만 연구한다든지, 칼빈의 저술만을 참조하는 경향들을 보였다. 그 결과 칼빈의 신학은 정확하게 기술되었는지 모르지만, 칼빈이 왜 그런 진술들을 해야

만 하였고, 그것이 역사적 상황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다. 『성령의 신학자』는 부분적으로 이런 단점을 극복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인상을 받는다.

비록, 칼빈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도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칼빈의 위대성을 너무 초점을 맞추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가 개혁신학의 위대한 스승인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 칼빈이 가장 위대하다든지 혹은 유일한 스승인 것같은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는 그 당시 기라성 같은 여러 개혁 신학자 중에 한 명이었을 뿐이다 (이것은 저자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다). 칼빈은 자신만의 독특한 신학을 추구하지 않았다 — 적어도 그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였다. 그는 공교회에 이해한 신학을 체계적으로 서술하였을 뿐이다. 그렇다면, 칼빈은 그 이전의 신학(특히 교부들)과 동시대의 신학자들에게 많은 빛을 지고 있다.

여기서 언급된 본 비평자의 몇 가지 불만들이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을 것이다. 여전히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제대로 읽혀지지 않는 시대에 이와 같은 불만들은 사치일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한국의 칼빈 연구자들이 이와 비슷한 종류의 책을 쓴다면, 김재성 교수의 『성령의 신학자』를 하나의 주춧돌로 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주춧돌 위에 무엇을 쌓는가는 전적으로 후학들의 몫이다.

## 존 칼빈의 신학과 경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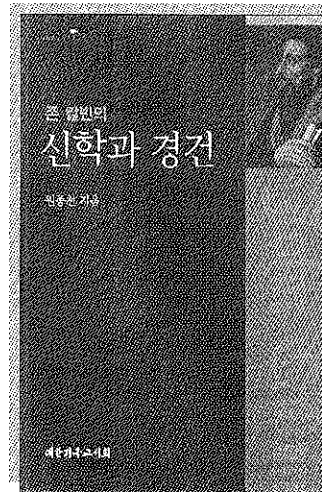
원종천 지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우리 개혁신학의 칼빈과 그의 신학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선호하는 종교개혁자 칼빈에 대한 연구가 적어도 외형적인 잣대로 평가할 때 많이 진전된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다. 이 땅에 개신교가 뿌리 내린지 벌써 100년이 지났으며 이런 세월이 흘러가는 가운데 한국 기독교, 적어도 보수적 기독교를 신봉하는 신학자들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자신들이 개혁 신학자임을 내세우게 되었다.

우리가 지닌 칼빈의 삶과 신학을 향한 열망은 서양 신학에 못지않게 대단하지만 그 열망이 실제적 지식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움이라고 할 수 있다. 매년 칼빈 관련 서적들이 상당수 출판되고 있지만 이들을 살펴보면 번역서가 대부분인 것이 이러한 안타까움을 잘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칼빈 연구에 대한 이러한 부재 또는 빈약함이 우리 신학계에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메마른 현실에 단비와 같은 최근의 칼빈 연구서 한 권을 소개하고 이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 칼빈과 청교도, 그리고 중세의 버나드 (Bernard)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역사신학 교수로 재직 중인 원종천 교수는 이미 『칼빈과 청교도 영성』(1994), 『청교도 언약사상: 개혁운동의 힘』(1998), 『중세 영성의 진수: 성 버나드』(2004)를 저술한 바 있다. 이는 저자의 저작 활동이 우선 그 방법론에 있어서 여타의 신학자들이 선택하였던 동시대적 (contemporary)이며 평행적인 (synchronic) 접근과는 달리 칼빈 전후 시대의 특정한 인물을 골라 그들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는 통시적 (diachronic) 방식을 택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독특하다. 여기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이러한 그의 저술 활동의 발전 과정에 있어서 칼빈이 그 중심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다. 칼빈을 중심으로 청교도를 이해하고 또한 그의 시각으로 중세의 신학자 버나드 (Bernard of Clairvaux)를 연구하는 것이다. 14년 전에 작성된 그의 단행본은 청교도들과 비교하는 관점에서 칼빈을 연구하였지만 올 4월에 선보인 이 책은 칼빈을 더욱 심도있게 연구하기 위해서 ‘경건’이라는 주제와 더불어 교리적이며 총체적인 차원에 초점을 맞추는 칼빈의 ‘신학’을 신선하고 흥미롭게 추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신간에 드러난 특징 중의 하나는 칼빈의 신학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경건’이라는 주제를 통하여 여전히 저자의 청교도와 버나드에 대한 관심어린 애정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본 서평을 청교도 그리고 버나드라는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인물과 신앙적 운동과 관련된 칼빈의 신학적 입장을 저자가 어떻게 추적하고 나름대로 정리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언약 및 안식신학자로서의 칼빈: 청교도 신학의 원조

먼저 이 책은 구원, 성찬, 언약, 인간, 교회, 안식, 그리고 신비의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2장은 구원과 성찬의 교리를 다루면서 (비록 분명하게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저자는 사실상 두 교리의 공통점이 기독교적 기초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는 듯하다. 먼저 1장의 핵심적 강조점은 구원이 지닌 신비를 보여주는데 있지만 칼빈이 주장하는 신비의 근원에 그리스도의 인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특히 내세운다. 그리고 2장에서도 성찬의 신비는 그리스도의 인성에 놓여 있음을 특히 강조한다. 3장은 칼빈을 언약신학의 원조로 이해하는 피터 릴백 (Peter Lillback)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칼빈의 언약 개념이 중세의 유명론자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관대함에 기초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칼빈이 ‘부성애’와 ‘수용적 은혜’로 이해하였다고 밝힌다(117). 그러나 칼빈이 이들의 공로사상을 철저히 배격하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힘으로서 그의 언약 이해가 중세의 그것과는 차별화될 뿐 아니라 더욱 성경적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리고 4-5장에서 인간과 교회를 다룬 후에 6장에서 칼빈의 안식 신학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6장은 다른 장들과는 달리 칼빈의 입장을 설명하는 방식을 탈피하여 안식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을 소개한다는 점에 있어서 독특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루터와 쾰링거의 견해를 소개할 뿐 아니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20세기 인물인 헤르만 호크세마 (Herman Hoeksema)의 견해까지도 다루고 있다. 물론 이 장이 칼빈이 안식 신학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칼빈 자신의 견해를 소개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던 앞 장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장을 전개하였음에 대한 정당화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저자는 유독 6장의 안식이라는 주제에 관해서만 정확한 의미에서의 ‘교리사적’ 시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칼빈의 안식에 대한 이해의 핵심은 중세의 엄격한 성일 준수명령에 대한 반발의 차원에서 안식일에 대한 고정된 날짜 개념에 집착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이를 구속적 관심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여 성화의 관점에서 이해하였던 것에 놓여 있기에 노동에서의 ‘안식’ 일이라는 본래적 의미가 축소되었다고 저자는 비판한다. 오히려 안식을 창조질서에 입각한 계명의 관점에서 보는 창조 안식의 견해가 더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214이하). 저자는 언약신학에 있어서 칼빈을 그 원조로 간주하

는 것이 분명해 보이지만 안식신학, 적어도 창조 안식과 안식일의 준수에 있어서 칼빈이 지녔던 유연함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버나드와 칼빈의 신비주의

7장에서 버나드와 칼빈의 유사성을 다룬 후에 칼빈의 신비주의에 많은 지면이 할애되었다(236-251). 여기에서 '신비주의'라는 용어를 저자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아쉬운 것은 신비주의에 대한 정의 없이 칼빈의 신비주의를 논하는 것은 칼빈에 대한 저자의 호의적인 태도를 증대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물론 칼빈에게 있어서 신비적 요소란 버나드와 유사하게 구원의 신비성을 그리스도와 연합에서 찾았다는 점이 정확하게 지적된 것이 사실이다. 구원을 이성적으로 논하는 것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것인가를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칼빈의 의도였음을 저자는 수차례 올바르게 강조한다(240-245). 그러나 "칼빈의 신비주의는 구원론에 나타나는 신학적 접근만으로 대표되지 않는다. 그의 신비주의는 신학적 해설을 통한 신비신학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만찬 개념을 통한 체험적 신비주의로 나타나기도 한다."(245)라는 표현은 사실상 칼빈을 중세의 다양한 신비주의자들로부터 적극적으로 차별화시키려는 의도를 지닌 표현임이 분명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아쉬운 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 표현은 오히려 칼빈이 여러 신비주의자들 가운데 (동일한 이성적 가르침을 공유하는 자로서) 특별한 종류의 체험을 지닌 자로 오해될 소지를 다분히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저자가 주장하는 '칼빈의 신비주의' 보다는 '칼빈의 경건에 드러난 신비성'이라는 표현이 저자의 본래 의도를 더욱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하는 의문을 제기해 본다.

## 아가페와 에로스

안데스 니그렌 (Anders Nygren) 지음  
고구경 옮김,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사  
1998



안데스 니그렌은 스웨덴 룬트(Lund) 대학을 중심으로 구성된 룬트 학파의 대표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스웨덴의 룬트 학파는 루터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간과될 수 없다. 북유럽을 대표하는 3개국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는 루터교 전통의 신앙을 고수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신학자들 철학자들 20세기 중반 이전에 활동한 이 세 나라 출신들의 사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루터의 사상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만큼 루터라는 인물은 북유럽의 3개국에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니그렌 역시 이런 점에서 예외일 수 없다. 아마도 루터는 그가 이 책을 쓰게 된 근본 동기였을 것이다. 그가 루터의 이신칭의와 십자가 신학이라는 관점을 통해 기독교의 사랑 개념이 아가페(agape) 즉 무동기적 사랑이라고 간파했다고 판단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니그렌은 이 무동기적 사랑 즉 신 중심적 사랑을 의미하는 기독교 사랑 개념인 아가페와 대등한 평행관계에 있으면서 동시에 대립관계에 있는 종교적 사랑 개념으로서 동기적 사랑 즉 인간중심적 사랑을 의미



하는 헬라 철학(종교)적 사랑 개념인 에로스(eros)를 상징한다.

니그렌에 의하면 기독교 역사는, 최소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까지의 기독교 역사는 순수 기독교적 사랑 개념인 아가페와 철저히 비기독교적인 사랑 개념인 에로스가 혼합되어 나타나는 장이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저자가 아가페와 에로스를 우열관계 즉 아가페가 더 고상하고 에로스는 덜 고상하다는 식으로 관계를 설정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우리는 저자가 경고하는 대로, 아가페를 천상적 정신적 사랑과 같은 고상한 사랑으로 이해하는 반면에, 에로스를 지상적 육체적 사랑이라는 다소 본능적이고 동물적인 사랑으로 해석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두 사랑 개념은 출발점이 다른 전혀 별개의 것으로 우열을 가리는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저자에 의하면 이 두 개념은 서로 만날 수 없는 평행선상에 놓여 있다.

니그렌은 무동기적인 사랑 개념인 아가페를 기독교의 핵심으로 간주한다. 근본적으로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 것에서 찾아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즉 하나님께서 아무런 동기 없이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교제할 수 있는 길로써 아가페를 제시하셨다는 것이다. 죄인을 향한 이 무동기적 하나님 사랑에 근거할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대상의 가치나 중요성에 매이지 않고 자신의 사랑을 무차별적으로 인간에게 베푸셨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인까지도 사랑하셨는데 바로 아가페이며, 이것만이 하나님과의 교제(Gottesgemeinschaft)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라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의 핵심 교리이자 기독교의 2대 강령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저자에 따르면 바울은 예수님 자신의 가르침인 아가페 개념의 결정체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바르게 이해했다. 즉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십자가의 사랑이야말로 하나님 사랑 즉 죄인을 아무런 동기 없이 사랑하시는 신 중심적 아가페라는 것이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바울은 값없이 주어지는 믿음(pistis)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표현했다고 니그렌은 강변한다. 즉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랑은 바울에게 있어서 신앙과 동일한 의미라는 것이다.

그러나 요한 신학에서 그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기독교적 사랑 공식을 제대로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사랑 개념의 순수성이 어느 정도 변형되고 약화되었다고 니그렌은 평가한다. 즉 요한 신학에서 헬라 철학적 요소가 어느 정도 기독교의 사랑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유입된 것으로 본다.

니그렌에 따르면 이러한 요한 신학은 앞으로 교회사에 나타나게 될 아가페 개념의 설명을 위한 에로스 개념의 도입을 용이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니그렌은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신학과 신학자들의 기독교 이해를 세 종류의 사랑 개념으로 분류한다. 이 세 유형은 기독교적 개념인 아가페와 헬라의 철학적 개념인 에로스와 유대교적 개념인 노모스(율법)이다. 첫째 개념만이 신 중심적인 순수 기독교적 사랑 개념이며, 둘째와 세째 개념은 인간 중심적이고 따라서 비기독교적인 사랑 개념이다. 저자는 마지막 세째 유형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취급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초대교회 교부들의 신학을 이 세 유형으로 구분한다. 즉 마르시온(Marcion) 이단과 교부 이레니우스(Irenaeus)를 순수 기독교 사랑 개념인 아가페의 대표자로 분류하고, 영지주의자들과 알렉산드리아학파를 기독교를 에로스 개념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한 대표자들로 간주하며, 속사도 교부들과 터툴리안(Tertullian)을 유대교적인 노모스 유형으로 분류한다.



니그렌은 터틀리안에 의해 유대교의 노모스 동기가 기독교의 아가페 동기와 절충하게 되었고,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대부인 오리겐에 의해 헬라의 에로스 동기가 기독교의 아가페 동기와 절충하게 되었다고 본다.

에로스 개념과 아가페 개념을 갈등과 충돌 개념으로 서로 만날 수 없는 평행선상에 있는 두 사랑 개념인 기독교적 아가페 개념과 헬라적 에로스 개념을 종합하려는 시도가 나타나는데, 그 대표기들이 아타나시우스(Athanasius)와 갑바도기아(Cappadocia)의 세 교부들 가운데 한 사람인 니사의 그레고리(Gregory of Nyssa)이다.

니그렌에 의하면 이 종합의 시도는 어거스틴(Augustine)의 신학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어거스틴의 사랑 개념인 카리타스(caritas)는 바로 아가페와 에로스의 종합이다. 이것을 니그렌은 종합의 1단계로 보고, 중세 시대의 신비주의와 스콜라주의(Scholasticism)를 종합의 2단계로 간주한다. 그리고 이 종합을 에로스 동기에 의해 파괴한 것이 르네상스(Renaissance)이며, 아가페 동기에 의해 파괴한 것이 종교개혁이라고 니그렌은 주장한다.

어거스틴의 사랑 개념인 카리타스가 어떻게 두 평행적인 사랑 개념의 종합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중세 신학으로 연결되는지를 원자료에 근거하여 상세하게 제시하는 니그렌의 설명은 굉장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시작부터 종교개혁에 이르기까지의 기독교 역사를 아가페와 에로스 사이의 상관 관계를 통해 명쾌하게 설명하는 니그렌의 저술은 바로 감탄 그 자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론도 비판 받지 않을 만큼 빈틈없이 완벽한 것은 없다. 니그렌의 책 역시 이 점에 있어서 예외일 수 없다. 과연 비동기적 기독교 사랑 개념인 아가페와 동기적 사랑 개념인 에로스는 서로 만날 수도 또한 만나서도 아니 되는 평행적 개념일까? 아가페와 에로스가 만날 경우 아가페는 왜곡될 수 밖에 없는가? 모

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기독교적 수용성에서 볼 때, 그 두 개념이 영원한 평행선상에 있다는 것은 분명 니그렌이 자신의 설명을 위해 만든 인위적인 구조라는 공격을 피할 수 없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가페의 비동기성에 대한 니그렌의 지나친 강조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구속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고려할 여지를 없애버린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것은 니그렌이 주장하는 순수하게 비동기적인 것으로만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어찌면 이런 점에서 비동기적 아가페 사랑이라는 니그렌의 가설은 기독교적 사랑을 표현하기에 불충분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것 이외에도 니그렌의 성경에 대한 이해 역시 문제가 있다. 또한 니그렌이 파악한 루터의 사랑 개념이 그가 평가하듯이 순수 기독교적인 아가페 개념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어찌면 루터 역시 어거스틴과 같은 종합적 개념을 인정한다고 평가하는 것이 더 정당할 것이다.

니그렌의 기독교 사랑 개념에 대한 분석은 이런 문제점들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신선한 충격을 주기에 충분하다. 충분히 일독할 가치가 있는 책이다.

번역자인 고구경 씨는 이 책을 매우 신중하게 번역한 것 같다. 한 단어를 동일하게 번역하지 못한 아쉬움은 거의 모든 번역서들에서 발견되는 공통된 것이다. 때로 이런 일은 더 정당한 일로 판단될 수 있다. 왜냐하면 언어의 상이성은 사상뿐만 아니라 문화와 관습의 상이성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 개혁주의 학술원 소식

### ✦ 제 3회 종교개혁기념 국제학술세미나

제 3회 종교개혁기념 국제학술세미나가 “칼빈과 사회”(Calvin and Society)라는 주제로 손봉호 교수(고신대학교 석좌교수, 전 동덕여대 총장)와 올슨 교수(Dr. Jeannette E. Olson, 미국 로드아일랜드대학/보스턴대학교 역사학 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고신대학교 비전관 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 강의 제목 : 칼빈과 정치참여 (손봉호 박사)

The Care of the Poor in Calvin's Geneva (Dr. J. E. Olson)

- 일 시 : 2008년 10월 30일 (목) 오후 2시 - 오후 5시

### ✦ 제 4회 교수포럼 (Faculty Forum)

제 4회 교수포럼 (Faculty Forum)이 강영안 교수(서강대학교)를 강사로 모시고 고신대학교 살롬관 김현태홀에서 개최되었다. 교수포럼은 기독교 학문과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주제들에 관하여 고신대학교를 비롯한 국내외 기독교 대학의 교수들이 함께 발표하고 토론함으로써 개혁주의 학문창달과 교육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 주 제 : “독서법의 두 전통과 기독교학자의 성품형성”
- 일 시 : 2008년 11월 21일 (금) 오후 4시

### ✦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총서 제 3집 『칼빈과 사회』 출판 예정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총서 제 3집이 『칼빈과 사회』라는 주제로 다양한 국내외 칼빈 학자들의 우수한 논문들로 편집되어 올해 말에 출판될 예정인데 제목과 집필진은 아래와 같다.

- ▶ “칼빈과 사회개혁” (라은성 교수)
- ▶ “칼빈과 자본주의” (유태화 교수)
- ▶ “칼빈과 경제윤리” (이환봉 교수)
- ▶ “칼빈과 구호활동” (이상규 교수)
- ▶ “칼빈과 성시화운동” (주도홍 교수)
- ▶ “칼빈과 여성” (심창섭 교수)
- ▶ “칼빈과 유토피아” (이신열 교수)
- ▶ “칼빈과 피난민 (Calvin As an Asylum Seeker)” (Selderhuis 교수)



### ✦ 제 2차 개혁신앙아카데미 개설

제2차 개혁신앙 아카데미의 개설을 희망하는 교회를 모집하고 있다. '개혁신앙아카데미'는 개혁 교회를 표방하면서도 개혁주의 신앙의 역사와 원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못한 우리 교회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고신대학교 개혁주의학술원이 지역교회를 찾아가서 개혁주의 전반에 대한 전문교육을 대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2008년 11월부터 시작하여 '개혁신앙아카데미' 개설을 요청한 교회를 중심으로 계속 개최될 예정이다.

#### :: 아카데미 주제 및 강사진 ::

- ▶ "개혁주의 교회의 역사는 무엇인가?" 이상규 교수
- ▶ "개혁주의 교회의 신앙은 무엇인가?" 이환봉 교수
- ▶ "개혁주의 교회의 세계관은 무엇인가?" 전광식 교수
- ▶ "개혁주의 교회의 문화관은 무엇인가?" 이신열 교수
- ▶ "개혁주의 교회의 교육관은 무엇인가?" 김성수 총장
- ▶ "개혁주의 교회의 국가관은 무엇인가?" 황대우 박사

**운영방식** 지역교회의 요청을 따라 지역교회를 방문하여 매주(주일 오후) 1 주제 또는 2 주제 단위로 연속 6주간 또는 3주간에 걸쳐 강사들이 차례로 강의한다. 주일 오후에 시간은 해당 교회와의 사전 협의에 의하여 지역교회에 적합한 시간을 정할 수 있다. 교회의 협력을 받아 학생을 모집하되 주로 제직과 교사 훈련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면 유익할 것이다.

모든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고신대학교 학술원의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개혁신앙아카데미'는 교회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교회 별로 시작될 예정이며 항상 사전에 신청하여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 제1차 개혁신앙아카데미를 수료한 교회는 다음과 같다.

- 모든민족교회 (최정철 목사)
- 성도교회 (박래영 목사)
- 사직동교회 (김철봉 목사)
- 마산동광교회 (박해형 목사)
- 창원한빛교회 (윤희구 목사)
- 하동지역교회연합
- 마산교회 (원대연 목사)
- (고남교회당, 조기영 목사)



### ✦ 영어저널(English Journal) 발간 계획

#### 「Journal of Korean Reformed Theology」

「Journal of Korean Reformed Theology」이라는 영어저널(English Journal)을 정기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본 학술원은 새로운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상반기부터 고신교회를 중심으로 한국의 개혁 신학을 해외의 개혁 교회에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해외 개혁 교회와의 신학적 교류를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훌륭한 논문들을 해외에 널리 소개함으로써 세계 개혁 신학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원고 접수처 kirs@kosin.ac.kr

(Tel. 051-990-2266, 2268 / 담당 김문정 조교)

### ✦ 칼빈 출생 500주년 기념 「한국 칼빈 학술 대회」 개최 예정

칼빈 출생 500주년 기념 「한국 칼빈 학술 대회」를 2009년 5월 중에 국내의 저명한 칼빈 학자들을 초빙하여 개최할 예정이다. "칼빈의 신학적 유산과 현대적 의의"라는 주제로 지난 세기 동안의 교회와 사회에 대한 칼빈 신학과 사상의 영향을 살펴보고 21세기 한국 교회와 사회의 개혁을 위한 개혁주의 신학과 사상의 시대적 사명과 과제를 새롭게 확인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 ✦ 개혁주의학술원 홈페이지 확대 개편

참빛교회(김윤하 목사)의 후원으로 개혁주의학술원 홈페이지를 대폭적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기존 홈페이지의 도안과 구성을 새롭게 편성하고 더 많은 개혁주의 연구 자료들을 추가하였으며 현재의 웹 주소(<http://www.kirs.kr>)와 더불어 한글주소(<http://개혁주의.kr>)를 통한 접속도 가능하다.

웹 주소 <http://www.kirs.kr> 웹 한글주소 <http://개혁주의.kr>

### 개혁주의 학술원 후원교회

고신대학교 개혁주의학술원을 위해 후원해주시는 모든 교회 앞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의 새로운 부흥을 위해 세계적인 최상의 연구기반 형성과 학술연구 활동을 약속합니다.

(2008. 10. 현재 / 총 54 교회 / 가나다 순)

기음정교회	등부산교회	부산범천교회	성안교회	창원한길교회
거제교회	동산교회	부산북교회	성은교회	창원한빛교회
거창교회	등상교회	부산비전교회	용호중앙교회	초장동교회
경주교회	등항교회	부산서면교회	울산교회	총무제일교회
광주은광교회	등촌교회	부암제일교회	제3영도교회	포도원교회
광주은성교회	마산교회	사직동교회	제4영도교회	한밭교회
김해중앙교회	마산삼일교회	삼일교회	진목교회	한울교회
남천교회	매일교회	삼천포교회	진주동부교회	화명제일교회
대구서광교회	명덕교회	서문로교회	참빛교회	활천제일교회
대양교회	모든민족교회	서울시민교회	창원교회	향상교회
대저제일교회	부곡중앙교회	성도교회	창원은광교회	

### 무통장 입금 및 자동이체계좌

● 농협 485-01-032852 (예금주: 고신대개혁주의학술원)

### ✦ 개혁주의학술원 전문도서관 신간 서적 최근 구입 현황

- Ursinius, Zacharias, *우르시니우스 신학작품집*, Johannis Lancelotus, 1612.
- Peterson, Robert & Michael D. Williams, *Why I Am Not an Arminian*, InterVarsity Press, 2004.

- Bagchi, David & David C. Steinmetz (eds.), *The Cambridge Companion to Reformation The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 Dommen, Edward & James Bratt, *John Calvin Rediscovered*, Presbyterian Pub. Corp., 2007.
- Gordon, Bruce & Emilio Campi (eds.), *Architect of Reformation*, Baker, 2004.
- Hillerbrand, Hans J., *The Division of Christendom*, Presbyterian Pub. Corp., 2007.
- Cameron, Euan, *The Sixteenth Century*, Oxford Univ. Press, 2006.
- Po, Hsia Chia & Hsia, R. Po-Chia (eds.), *A Blackwell Companion to the Reformation World*, Blackwell, 2004.
- Heinze, Rudolph W., *Reform and Conflict*, Monarch, 2007.
- *The Geneva Bible (1560 edition): The Bible of the Protestant Reformation*, Hendrickson, 2007.
- Hall, David, W., *Legacy of John Calvin: His Influence on the Modern World*, P & R, 2008.
- Markish, Shimon, *Erasmus and the Jew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6.
- Methuen, Charlotte, *Science and Theology in the Reformation: Studies in Interpretations of Astronomical Observation in Sixteenth-Century Germany*, Continuum, 2008.
- Davis, Thomas, J., *This Is My Body: The Presence of Christ in Reformation Thought*, Baker Academic, 2008.
- Fielding, Helen, *The Reformation*, Penguin USA, 2005.
- Zophy, Jonathan, W., *A Short History of Renaissance and Reformation Europe*, Prentice-Hall, 2007.
- Zachman, Randall, C. (ed.), *John Calvin and Roman Catholicism*, Baker Academic, 2008.
- Hall, David W., *Theological Guide to Calvin's Institutes*, P & R, 2008.
- 존 칼빈, 『칼뱅의 시편 119편 설교』, 박건택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2004.
- 이현담, 『칼뱅의 성만찬론』, 한국학술정보, 2008.
- 어니스트 케빈, 『율법 그 황홀한 은혜』, 임원택 역, 수플, 2006.

# 갱신과 부흥

REFORM & REVIVAL / 창간호 2008 Vol.1

## 권두언

이환봉

교회개혁의 과제 ① 오직 성경으로

## 개혁교회 강단

존 칼빈

한 번의 가르침을 영원한 유익으로 (시편 119편)

이근삼

그리스도의 교회 (마 16:13-28)

## 개혁신학 산책

이상규

교회개혁으로서의 설교

황대우

최초의 개혁주의 윤리학자 마틴 루터

이신열

루터와 성경의 명료성

빌름 판 스파이커

마틴 루터와 성경의 인자성

## 개혁신앙 칼럼

송영록

그리스도인과 자살

편집부

근고지영(根固枝榮)과 개혁주의 성화론

## 서평

이성호

김재성 「성령의 신학자 존 칼빈」

이신열

원종진 「존 칼빈의 신학과 경전」

황대우

안더스 니그렌 「아가페와 에로스」

Reform & Revival



고 신 대 학 교  
개혁주의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 Kosin University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149-1

전화 : 051-990-2266 / 2268 • 팩스 : 051-911-2526

홈페이지 : [www.kirs.co.kr](http://www.kirs.co.kr) • E-mail : [kirs@kosin.ac.kr](mailto:kirs@kosin.ac.kr)



9 772005 421005

ISSN 2005-4211



고 신 대 학 교  
개혁주의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 Kosin University